



사천시보

<http://www.sacheon.go.kr>

1
2014년 1월 2일
NO. 213

FAX : 055)831-6011, E-Mail : shgongbo@korea.kr

발행인 사천시장 / 발행처 사천시 : 우)664-701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덕곡리501) / 편집 기획감사담당관실 / 전화 055) 831-2215 / 1996년 1월 25일 창간

근하신년

2014년 희망찬 갑오년 새해,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삼천포대교 일출

☞ 주요 지면안내

02

삼천포대교
일출 관광객 복적

03

한방으로 100세 건강마을 만들기
전 읍면동 모집운영

05

제175회 사천시의회 제 2차 정례회 개최

사천시가 매월 발행하는 사천시보는 사천시청 홈페이지 'e-book'으로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희망찬 갑오년(甲午年) 새해, 삼천포대교 일출 관광객 복적

지난 1월 1일 청정해역 한려수도의 중심지이면서 한국의 아름다운 길 「대상」으로 선정된 삼천포대교의 해맞이 축제에는 많은 인파가 몰려 희망찬 갑오년 새해 아침을 맞았다.

이날 해맞이 축제는 풍물패의 길놀이로 시작으로, 사물놀이와 대방 굴항 앞 신방파제에서 신년 축포를 쏘아 올려, 해뜨기 전 시민과 관광객이 한데 어울려 아름다운 불꽃놀이를 감상하였다.

이어 새해 축하메시지가 전해지고, '희망의 북' 타고(打鼓), '만세 삼창', '모듬북 공연', '다리 밟기'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었다.

농협중앙회 사천시지부에서는 관광객에게 보은 장갑을 제공하고, 사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BAT 코리아사와 사천시 새마을회에서는 소망 떡국 나누어 먹기 행사를 개최하여 떡국을 제공하였으며, 사천여성 의용소방대와 사천시 대방동 큰고을 굴항회에서 따뜻한 차를 제공하여 사천시민의 훈훈한 정을 해맞이 관광객에게 전해 주었다.

일출을 보러 온 한 시민은 힘차게 떠오르



는 붉은 태양처럼 사천시가 올해에도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교육, 문화, 복지 등 모든 면에서 잘 사는 도시가 되었으면 하

는 바람을 전하기도 하였다. 한편 2013년의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자정에는 사천시청 광장에서 제야의 타종

행사가 개최되어 사천시의 안녕을 기리기 위한 33회의 사천시민대중 타종이 있었다.



‘별 그리고’ 사천단감 탐프루트 전국 최고 인정

사천 단감이 전국 최고의 과일로 선정되었다.

지난 11월 20일 농촌진흥청 주최 2013년 탐프로젝트 품질평가회에서 사천을 두랑리에서 단감 과수원을 경영하는 김형백씨가 출품한 단감이 최우수상으로 선정되어 사천단감의 우수성을 널리 알렸다.

탐프로젝트 품평회는 전국의 탐프루트 단지(사과, 배, 단감, 감귤, 딸기)에서 출품한 최고 과일·과채류 126점을 대상으로 농촌진흥청, 언론인, 유통업체, 생산자단체, 소비자 등으로 구성된 전문심사위원이 엄격하고도 공정한 품질, 외관 심사를 통하여 수상자를 결정한다.

탐프루트란 농촌진흥청에서 추진하는

탐프로젝트에 의해 생산된 과실로 크기, 당도, 색도, 안전성 등 최고품질 기준에 의해 선별한 과실을 의미하는데, 탐프루트 단감은 과중 280g±30g, 당도 14.5° Bx 이상, 색도계 5 이상, 농약잔류허용기준 이하 안전성 등 최고 품질 기준을 정하여 그 기준을 통과한 과실만 탐프루트로 인정하고 있다.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별 그리고’ 사천단감 탐프루트단지회 총무 김형백 씨는 매월 실시되는 시범단지 현장컨설팅과 평가회에 출선수범하여 참석하면서 최신 재배기술을 접목하는 등 최고의 단감생산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한 농가주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 전면사용 안내입니다.

도로명주소는 이렇게 사용합니다

- ❖ 2014년 1월 1일부터 공공기관에서 전입·출생·혼인신고 등 각종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 부동산매매, 우편, 택배, 인터넷쇼핑, 명함 등 일상에서도 도로명주소로 생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 주민등록증·사업자등록증 등은 신규·재발급할 때 도로명주소로 표기 됩니다.
- ❖ 기존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의 주소변경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도로명주소 스티커를 부착하여 드립니다.

도로명주소는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 ❖ 도로명주소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찾아보세요.
 - 지번주소, 건물명을 검색창에 입력하면 도로명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스마트폰 앱(주소찾아)에서 찾아보세요.
 - 건물번호판을 비추거나 건물명을 검색하면 도로명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인터넷 포털(네이버, 다음 등)에서 찾아보세요.
 - 검색창에 지번주소를 입력하면 도로명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주민등록증, 공동주택 승강기에 부착된 안내스티커에서도 도로명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로명주소는 이렇게 읽고 씁니다

- ❖ 도로명주소는 지금까지 쓰던 지번주소에서 시·군·구·읍·면까지는 같지만 동 리와 지번대신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사용합니다.

구분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단독주택	사천시 향촌동 922-10	→ 사천시 송미길 91(향촌동)
공동주택	사천시 동금동 88-4 경남아파트 ○동 ○호	→ 사천시 동금2길 15, ○동 ○호 (동금동, 경남아파트)

*동(洞)과 공동주택(아파트)의 이름은 참고항목(괄호)으로 생략가능

- ❖ 지번주소의 지번은 '○○번지'로 읽으며,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는 '○○번'으로 읽습니다.

2014년 한방(韓方)으로

'100세 건강마을 만들기' 사업 전 읍면동 모집

시보건소, 올해 28개 마을 모집

사천시 보건소에서는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지역주민의 만성·퇴행성 질환의 한의학적 관리를 위해 한방(韓方)으로 '100세 건강마을 만들기'라는 사업을 2013년 15개 마을에서 올해 28개 마을로 확대하여 모집 실시할 계획이다.

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본 사업은 공중보건간 의사 1명, 한방전담간호사 2명이 1개 팀으로 구성되어 2월부터 11월까지, 주1회, 기별 12주씩 총 3기로 운영된다.

주요 프로그램은 대상자 관리카드 작성 후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등 기초적인 건강검진, 치매, 우울검사와 사상체질별 진료를 통한 침 치료와 상담, 한방기공체조, 중풍예방을 위한 식이·양생 교육, 중풍예방 및 관리교육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013년 15개 마을 운영 결과 건강지수 35.4% 개선, 신체통증지수 38.3%



감소 등 개인별 건강수준이 많이 향상되어 참여자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보건소 관계자는 "기존 한의약건강증진 프로그램의 효과와 장점을 최대한 살려 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건강 문제 해

소 및 질병예방 중심의 사업을 꾸준히 수행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사천시 보건소 방문보건담당(☎831-3577)으로 하면 된다.

여권 업무, 목요일 야간운영

올해 1월부터...저녁 6-8시

사천시는 근무시간 내 여권 신청이 어려운 맞벌이 부부근로자 등과 여권신청이 힘든 다문화가족 및 노인 등의 편의를 위해 올해 1월부터 여권 야간민원 업무를 추진한다.

근무시간에 여권발급 신청 및 수령이 어려운 분은 매주 목요일 야간 민원 업무시간에 민원실 창구를 방문하여 여권을 신청, 이미 발급받은 여권을 교부받을 수 있으며 업무시간은 저녁 6시부터 8시까지이다.

여권 발급 신청시 준비물은 신분증,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여권용 사진 1매, 유효기간이 남은 경우 구 여권 등이며, 여권 수령시는 본인일 경우 접수증과 신분증, 대리인일 경우 접수증과 여권 명의인 신분증과 대리인 신분증을 가져오면 된다.

여권 발급 처리기간은 4~5일 정도 소요된다.

발급 장소는 사천시청 민원지적과 1층이며 문의는 ☎831-2981, 2983으로 하면 된다.

제6회 2013년도 사천농업대학 졸업식 개최

3개 과, 89명 졸업

지난 12월 23일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는 제6회 2013년도 사천농업대학 졸업식이 개최되었다.

올해 졸업식에는 친환경농업, 도시농업, 농산물마케팅과 등 3개 과정 114명이 입학하여 엄격한 학사규정으로 교육과정 75% 이상 이수한 89명의 졸업생이 수료증을 받게 되었다.

사천농업대학은 3월 22일부터 11월 29일까지 각 과정별 재배기술, 토양관리 등의 이론교육과 현장실습, 선진농장 견학 등 100여 시간의 체계적인 교육과정으로 운영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졸업식 시상에서는 문선 3길 31-14 정상세씨가 공로상을 (농촌진흥청장



상), 서포면 아랫목길 115 강금용씨와, 용현면 금문4길 33 강동춘씨가 학장상을 받았으며, 사남면 화전3길 22 박정숙 외 9명이 모범상을, 과제 우수 제출자에게 시상하는 성적 우수상은 용현면 용정길 203-13 김장춘 외 5명이 수상했다.

사천농업대학은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정예 핵심리더의 육성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농업 발전기반 구

축을 목적으로 2008년 46명의 제1회 졸업생을 배출한 이후 2009년에는 3개과정(한우, 참다래, E-비즈니스) 125명, 2010년 3개 과정(친환경농업, 딸기, 농촌 어메니티) 114명, 2011년 3개 과정(친환경농업, 참다래, 신규농업인) 111명, 2012년 2개 과정(친환경농업, 채소) 99명 등 총 495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한편 사천농업대학은 농촌진흥청에서 실시하는 농업인 대학 운영평가에서 2012년도에 이어 올해에도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면서 기관표창과 함께 시상금 200만원을 수여받는 영광을 안기도 하였다.

시 관계자는 "농업대학 운영결과 교육생들의 반응이 좋고 배우고자 하는 열의가 대단해 앞으로 지역농업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라며 내년에도 수요조사를 거쳐 3개 과정을 편성하여, 3월부터 제7회 사천농업대학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설 명절, 원산지 표시 단속

수산물취급소 대상...1월 13-24일

사천시는 오는 1월 13일부터 1월 24일까지 설명절 대비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불시에 실시한다.

대상은 관내 수산물 취급소(횃집, 상가, 재래시장, 일반음식점 등)이며 단속 내용은 명절 성수품 및 지역특산품 둔갑 우려 상품과, 원산지 미표시, 거짓표시, 원산지 위장판매·보관 또는 진열 여부, 원산지 표시의 이행 여부 및 방법의 적정 여부 등이며 일본 방사능 불안에 따른 안전한 수산물 소비홍보도 병행 추진한다.

위반사실 적발시는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거하여, 원산지 미표시는 위반 수량과 적발 당일 해당업소의 판매가격에 따라 과태료(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부과, 음식점 원산지 미표시(9개 품목)일 경우 품목별로 각 30만원~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1회 위반시 30만원, 2회 위반시 60만원, 3회 위반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를 허위 표시했을 경우에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과해진다.

사천시 각산 정상 표지석 설치

지난 12월 4일 사천시 삼천포 지역의 명산인 각산 정상에 표지석이 설치되었다.

그동안 각산에는 정상 표지석이 없어 지역주민 및 등산 애호가들의 여망이 있어 왔는데, 국제라이온스클럽 355-E지구 삼천포라이온스클럽(회장 박종수)에서 라이온스클럽 창단 50주년을 기념하여 기증, 설치하였다.

각산은 오르는 길이 평이하고 산전망대에서 내려다보는 삼천포 앞바다

의 작은 섬들과 창선 대교가 한눈에 들어와 등산객들과 지역민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또한 산에는 각산산성과 봉화대도 있어 역사적인 장소로도 알려져 있다.

한편 지금까지 각산의 정상은 전망대(표고 398m)로 알고 있었으나,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라 각산 정상은 봉화대(표고 408m)로 확인되었다.



사천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 사랑의 김치로 따뜻한 마음 나누기 행사 개최

사천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회장 최연순)에서는 지난 12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사천시자원봉사센터에서 회원 3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3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를 개최했다.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는 김장을 담그지 못하는 주위의 소외계층을 위해 봉사단체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진행한 것으로, 이날 회원들은 김장김치용 배추 7,000포기를 준비해 20kg들이 900통의 김장을 담귀 관내 독거노인과 장애인 세대 등 총 900세대에 나눠주었다.

연말을 맞아 관내 소외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마련된 이번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는 사천시와 농협중앙회사천시지부, 희망나눔회사천시협의회, 경남은행삼천포지점 등에서 후원하였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사천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와 자매결연을 맺은 거창군자원봉사협의회, BAT코리아(한사랑회), EEW코리아(작은사랑나눔



회), 한전산업개발(사랑나눔), 한국폴리텍대학항공캠퍼스(나눔자리), 천사회, 생활공감정책사천시모니터단, 한전KPS(한마음봉사단) 자원봉사자등 많은 단체에서 자원봉사자로 참여하였다.

최연순 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이를 통해 나눔의 의미를 공유할 수 있고, 취약계층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더욱 뜻 깊은

시간이 된 것 같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사회를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희망나눔회 사천시협의회(회장 이승연)에서는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에 5백만 원을 쾌척하여 연말연시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조성에 동참, 훈훈한 이웃사랑의 귀감이 되고 있다.

/지역 단신/

6·25 참전유공자 '호국영웅기장' 수여

사천시는 지난 11일 오전 시청 중회의실에서 사천시장, 이형남 진주보훈지청장 및 관내 보훈단체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6·25 참전 유공자 호국영웅기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전수식은 6·25전쟁 정전협정체결 60주년을 기념, 6·25전쟁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국가보훈처에서 제작한 기장을 자치단체장이 직접 전수하여 국가유공자를 존경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시에서는 이날 6·25 참전 유공자 생존자 448명 가운데 43명에게 호국영웅기장을 수여했으며 이날 참석하지 못한 참전유공자에게는 우편으로 전달 할 예정이다. 호국영웅기장은 특정한 사건과 업적, 날 등을 기념해 국가가 수여하는 기념장(記念章)으로 지난 1950년 10월 한차례 수여한 이후 63년 만에 수여하게 된 것이다.

이날 전달된 메달형태인 기장에는 한반도 지도 위에 '정전 60주년 기념'이라는 문구와 지도 둘레에는 '자유·평화·영웅·호국'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어 자유와 평화에 대한 염원과 6·25참전유공자에 대한 깊은 존경의 뜻을 담고 있다.

한우품목 FTA 폐업 지원제 추가신청

사천시 농업기술센터는 이번 달 1월 17일까지 축사소재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폐업 지원제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추가신청 자격은 지원대상 품목 고시일(2013. 5. 31.)부터 2차 신청·접수 전일(2013. 12. 22.) 사이에 폐업한 자와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해당 품목을 사육하고 있는 자이며, 2013년도 해당 품목의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로서, 신청시 제출서류는 폐업지원금 신청서, 사후관리 이행사항 확인서, 폐업동의서(축사 임차인 경우), 건축물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구비하여 축사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 농가는 향후 5년간 가축사육업 등록과 허가가 말소되고 자신 또는 타인의 축사에서 한·육우를 사육하거나 위탁받아 사육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폐업지원금 수령인이 사용하던 축사 또한 한·육우 사육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이에 시 관계자는 "폐업지원제 신청에 앞서 폐업 신청에 따른 농가 의무사항 및 행정적제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업신청 할 것"을 당부했다.

농업한마당 축제, 내년부터 3일간 개최

사천시농업한마당 축제가 내년부터 하루 연장된 3일간 (2014. 10. 31 ~ 2014. 11. 2) 정동면 소재 항공우주테마 공원에서 개최된다.

지난 11월 개최된 2013사천시농업한마당축제에는 4만 2천여명의 관람객이 행사장을 찾아 성황을 이루었고, 지역에서 생산한 우수한 쌀과 과일류, 소채류, 버섯류, 한우고기, 돼지고기 등을 비롯한 사천시 우수 농·축·수산물을 전시해 지역 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홍보 기회를 제공했으며, 우수한 품질을 입증하듯 3억 5천만 원의 판매실적을 기록하였다.

또한 천연염색, 미니 화분 만들기, 연 만들기, 전통놀이 체험, 탈곡 시연 등 다채로운 체험행사를 통해 세대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화합의 한마당이 펼쳐져 지역 대표축제로 자리 잡았다.

곤명면 '다슬기 초량 마을'

대한민국 농촌마을대상 국무총리상 수상

사천시 곤명면 다슬기 초량 마을이 지난 17일 대전 ICC호텔에서 개최된 제3회 대한민국 농촌마을대상 『색깔 있는 마을 부문』에서 국무총리상 수상과 함께 상금 3,000만원을 받았다.

이번 수상은 『다·슬기로운 공동체 다슬기 마을』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주민 스스로 유·무형의 농촌자원을 활용한 농촌체험관광활성화, 농촌 활성화 운동에의 적극적 참여, 마을 공동체 복원, 주민화합과 소통을 통한 갈등해소, 마을공동사업을 통한 농가소득 창출 및 후생복지 향상에 기여한 마을공동체의 노력을 높이 평가받은 것이다.

참다래연합회 세계농업기술상 수상

사천시참다래연합회(회장 김명석)가 지난 12월 11일 서울시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된 '2013년 제19회 세계농업기술상 시상식'에서 협동영농부문 최고상인 우수상을 수상했다.

사천시 참다래연합회는 조직 결속력을 높이기 위해 여러 조직으로 나누어져 있던 지역 참다래 생산자단체를 연합회로 통합하고, 불가사리를 활용한 화학비료 대체 기술 도입, 그리고 지역의 참다래 외인 가공업체와 협력하여 사천 참다래가 6차 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한 공을 크게 인정받았다. 한편 이날받은 우수상 시상금 100만원을 사천시에 불우이웃 성금으로 기탁했다.

사천시민과 함께하는 신년맞이

경남도민예술단 경남팝스오케스트라 공연 개최

경상남도가 주최하고 사천시, 경남팝스오케스트라단(단장 공병철)이 주관하는 「사천시민과 함께하는 신년 맞이 경남도민예술단 경남팝스오케스트라 공연」(지휘자 최철희)이 오는 1월 24일(금) 오후 7시,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린다.

경남팝스오케스트라는 경남도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의 보급 및 문화향유 기회 제공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아름다운 클래식 대중화와 저변확대에 기여하기 위해 2002년 11월 17일 창단하였다. 클래식과 영화음악의 만남, 클래식과 팝의 만남 등 전 장르를 구분하지 않는

최고의 연주를 통해 음악이 대중에게 쉽고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번 공연에는 가수 원미연, 소프라노 이윤숙, 바리톤 김종홍이 출연하며 경남팝스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영화 '록키' 주제곡 (Highlights From 'Rocky')과 영화 '산체스의 아이들' 주제곡 (The Children of Sanchez) 이 연주되며, 가수 소프라노 이윤숙의 헨델의 오페라 '리날도' 중에서,뮤지컬 '마이 페어 레이디'의 'I could have danced all night', 바리톤 김종홍의 '라르고', '내 나라 내 겨레' 그리고 듀엣곡으로 'All I

ask of You', '시월의 어느 멋진 날에' 등을 선보인다.

또 가수 원미연의 '위로해주세요', '조금은 깊은사랑', '뮤지컬', '이별여행' 등을 경남팝스오케스트라의 협연으로 더욱 더 풍부해진 대중가요가 사천시민에게 찾아가는 뜻 깊은 시간이 될 것이다.

이번 공연은 무료 관람이나 지정 좌석제로 운영이 되므로 공연티켓을 지정 받아야 입장이 가능하며, 입장권은 2014. 1. 13(월)부터 사천시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http://art.sacheon.go.kr>)에서 예약이 가능하다

※ 문화가족회원은 1인당 4매, 일반인 경우는 1인당 2매까지 지정할 수 있으며 그 밖의 궁금한 점이 있으면 문화관광과 공연기획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055-831-2460~3)

제175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2014년도 세입·세출안 등 안건 의결

제175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12월 2일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사천시시장으로부터 201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청취를 시작으로 20일까지 19일간의 일정으로 열렸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각종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의하였으며, 의원들의 시정질문이 있었다.

세부일정으로는 12월 3일 제1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각 상임위원회를 열어 사천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을 심사하고 12월 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등 모두 11건을 의결하였다.

12월 4일부터 12월 1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12월 12일에는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하였다.

12월 13일 제2차 연석회의에서는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 제안설명 후 상임위원회별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

하고 축조심사를 마무리하였다.

12월 18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실시하였으며, 12월 20일에 제3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예산안을 최종 의결하고, 시정질문과 함께 의원발의 한 각종 의안 의결 후 올해의 회기를 마무리 하였다.

175회 2차 정례회 시정 질문

◆조성자 의원

총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비례대표 조성자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시의 발전과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자리를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에 남다른 열정으로 노력하시는 정만규 시장님 이하 8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또한 시민의 권익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고 계시는 최갑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의 질의 내용은 불법모금 건, 자부담금 건에 관한 정산서, 행정사무감사 시 불법모금 정산서가 없는 점, 절차 없이 불법모금액 사용 건, 박재삼 관련 운영위원 처리건,

문화재단 이사장의 결재에 관한 권한 건, 사천세계타악축제 위원장의 예산집행에 관한 결재권, 각종 위원회의 정보공유 건 순서로 질의 하였습니다.

첫째, 「사천문화재단」정관 제4조(사업)제2항의 사업인 2012년도 사천세계타악축제를 추진하면서 재단법인 설립 이후 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의정신청서를 경남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기부금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승인 상태에서 불법으로 기부금품을 기부 받아 축제예산으로 집행한 것은 기부금 절차를 엄연히 어겼음에도 우리 시가 어떤 조치를 취하였는지 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자부담금 통장원장을 서면으로 제출하기를 수차에 걸쳐 요구하였으나 제출하지 않으면서 본 의원의 시정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기자회견의 반박 성명을 내면서 박재삼문학선양회 회원들을 비롯한 지역의 문인들은 자신의 시간을 투자하고 재능을 기부하며, 회비까지 내어가면서 봉사했다고 하면서 왜 당당하게 자신들의 회비내역을 공개할 수 없는지 불법모금을 자부담금으로 전용하여 납의 돈을 내 돈으로 가로채기를 하였다면 법 절차에 무슨 문제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불법모금액, 자부담금을 정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가?

사천시의회회 행정사무감사 시 불법모금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경찰서에 불법모금 정산서를 제출한 점은 의회를 무시한 행위이며 불법모금액 자부담금을 행정사무감사 시 정산하지 않은 점은 아무 문제가 없는지와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단계까지 예산을 배정하여야 하는지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시의회 의원 11명의 동의를 얻어 감사원 감사 청구 시 000 운영위원장은 모 언론에 감사원 감사를 받아 결백을 명명백백히 밝힐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하였으나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의회에서 서면으로 자료요구 시 결백하였다면 당당하게 자료를 제출치 못할 이유가 없음에도 언행일치가 되지 않는 점은 위원장으로서 자질문제라고 생각되며, 절차 없는 불법모금 사용에 대해 사천시는 어떤 조치를 해야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사천시 문화재단이사장이 원칙적으로 지출에 대한 결재를 하는 것이 타당한지 또는 2012년 사천세계타악축제 시 000 사천세계타악축제 집행위원장이 모든 지출에 대하여 결재한 것이 타당한지와 사천세계타악축제 집행

위원장의 업무추진비가 예산에 편성 되었는지, 사천세계타악축제 시 음향관계를 공모하여 놓고 수의계약으로 임의 변경하여 결재한 부분에 대한 문제가 없는지, 사천시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이 맞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000 사천세계타악축제 집행위원장이 사천세계타악축제에 운영만 하여야 할 것인데도 모든 예산에 결재까지 다한 점을 볼 때 사천문화재단이사장의 역할은 어디까지인지와 계약 건을 재단에서 하지 않고 예산을 재단의 승인 없이 실제로 집행한 사람과 사천문화재단 이사장과의 책임 한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일각에서는 문화재단을 없애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사천문화재단에 대한 불신의 원인이 무엇인지와 논란의 대상에 있는 공인이 사천세계타악축제 집행위원장을 맡았던 점이 적절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인으로서 논란의 대상이 되었음에도 그것도 모자라 박재삼문학관 운영위원장까지 맡아 박재삼 문학관 또한 투명하지 못한 예산집행 및 불법기부금 관련하여 사천시의회 의원 8명의 수사 고발까지 당한 것은 도덕성이 결여된 000 운영위원장 이하 전 운영위원들의 결여된 도덕성도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이에 대한 답변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무보수의 개념에 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박재삼 문학제 운영규정에 의하면 운영위원 스스로 무보수로 일한다는 규정을 볼 때 000 운영위원장의 무보수 봉사의 사례를 보면, 운영위원 회의 시 회의비 교박교박 다 챙겨가고 회의비를 받을 수 없는 불참자의 회의비까지 챙기고 박재삼문학상 예심 심사 서울 위로 출장 1일을 3명이 1박2일로 숙여 증빙서류는 분실하였다고 하여놓고 여비는 현금으로 3명의 출장비 504,000원을 계좌이체 하였고 출장비에 공무원여비 규정에 의하여 엄연히 식대 포함되어 있음에도 서울에서 식사비188,000원, 차값 14,400원은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별도 지출하였고, 심사위원들은 심사진행비(40만 원) 다 지급한 상황이었으며,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면, 1박2일의 출장근거가 다 나오기 때문에 증빙서류 분실은 있을 수 없는 사실임에도

기자회견 시 뻔뻔스럽게 증빙서류를 분실하였다고 한 사실 하나만으로 볼 때 도덕성을 짐작할 수 없는 사례이며, 불참자 회의비 수령 건, 출장비 횡령 건, 보조금 횡령 건에 관하여 철저한 조사와 환수를 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하며 타 단체에도 시민의 혈세 누수를 막기 위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으로서는 챙기는 것 다 챙기고 무엇으로 무보수로 봉사하였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또한, 사례로 박재삼 사천문학상 예심은 2012년 4월 2일 오후 7시 통양보건진료소에서 4명의 예심 심사위원이 심사를 하여 통과작 12편을 4월 8일 오전 10시 통양진료소에서 3명의 본심 심사위원이 박재삼 사천문학상 12편을 심사하고 심사료는 다음날 계좌이체 한 과정을 보면서 000 운영위원장이 한 달간 시집을 읽어 심사를 하기 때문에 고액 심사료를 책정하였다고 합니다.

예심 본심 심사위원의 영역이 구분되어져 있

지 않다면 이해가 되지만 심사 영역이 구분되어진 사항에서 예심 심사위원이 한 달간 읽었다면 본심 심사위원의 심사료 책정이 잘못되어 졌다고 봅니다.

예심 심사위원들이 60만 원의 심사료를 받는 것이 타당하고 본심 심사위원의 심사료는 30만 원을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 달간 시집을 읽은 사람과 6일 만에 예심 통과작 12편을 심사한 사람의 비중을 볼 때 본인에게는 과대평가하여 고액의 심사료를 책정한 것을 볼 때 이 또한 무료봉사의 개념이 무색한 단적인 사례입니다.

박재삼문학관이 있음에도 통양보건진료소가 심사를 하는 장소로서 적절한지와 공무원의 신분으로 예산이 수반된 사무국장직을 사퇴하지 않고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세계타악축제 집행위원장과 박재삼문학관 운영위원장의 신분으로 공인으로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지 못한 점은 안타깝게이며, 사천시 행정사무감사 시 성실한 자료제출과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진심어린 반성을 하였다면 사천시의회 의원의 연명으로 수사 고발 건까지 가지 않았을 것을 위원장 자리 고수의 결과가 주는 의미와 아직도 스스로 위원장직을 사퇴하지 않는 점은 진정한 봉사자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않는 사례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이 지적한 증빙서류와 심사결과에 대한 심사근거가 없는 심사위원의 심사료 환수와 행정사무감사 시 의원들의 서면자료 제출을 못하는 건수와 수사까지 간 단계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스스로 책임지고 사퇴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밀한 계획수립과 투명한 예산처리에 대한 단체와 비리로 얼룩진 단체를 구분하여 예산을 차별화 두지 않는다면 비리가 근절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차별화 없이 예산을 배정하여 주는 것이 타당한지 이에 대한 답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위원회를 통한 지도자 양성에 대한 문제점과 각종 위원회의 성격에 맞는 위원으로서 적합성, 부서 간 정보 공유가 되지 않아 위원회별로 과다 중복된 위원 선정의 재정보,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에 대한 전결권의 권한 위임에 관하여 질의 하였습니다.

부서 간 정보공유가 없기 때문에 3개 이상 최대 7개까지의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을 볼 때 위원회의 성격에 맞지 않는 특정인에 대한 과다 인선이 지도자 양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볼 수 있으며 단체장 위주의 위원회 참여보다 실무형인 총무를 많이 참여시켜 지도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선에 대한 재점검의 필요성이 요구됩니다.

우리 시의 위원회의 현황을 보면 84개의 위원회로 구성되어졌으며, 33개의 위원회는 한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점을 볼 때 실제적으로 위원회 활동은 45% 정도 밖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

다. 꼭 필요한 위원회를 제외하고 정비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서 적합성 중복 인선을 피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설치가 필요하며 각종 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님 및 부시장님의 위원장 전결권 비율을 낮추

어 권한 위임을 하실 의향과 우리 시의 지도자 양성을 위하여 특정인에 대한 다수 위원회의 참여가 바람직한 지도자를 양성하는 길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월의 마지막 달력을 보면서 미진한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환절기에 특히 감기 조심하시고 저의 질의에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최수근 의원

사천시 나선거구 무소속 최수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갑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정만규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 여러분 모두에게 고개 숙여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금일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하는 시정 질문의 주요 내용은 첫째 : 톤백수매(공공비축미) 축진을 위한 톤백수매용 공포대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과 둘째 : 지방도1002호선(노랑-배둔) 직선화(본촌-동천, 가산-구호 간 도로) 사업에 관한 문제, 셋째 : 월등도, 진도 진입도로 개설 공사장(송도-머구섬-신소-통정마을) 상수도관과 농업 용수관 매설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톤백수매(공공비축미) 축진을 위한 톤백수매용 공포대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톤백수매는 포대당 803Kg을 기준으로 수매하는 정부비축미 수매방법으로 농촌의 인구감소와 노령화로 일손이 부족한 우리 농촌의 현실을 감안 할 때, 조제(調製)와 포장의 간소화로 노동력과 노동시간 절감효과가 있어, 톤백수매 물량은 계속 증가 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톤백수매 물량을 조사한 결과 2012년 : 1,788포대, 2013년: 1,942포대로 해마다 154포대씩 증가하고 있어, 내년(2014년)에는 2,100포대 이상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구의 감소와 노령화로 일손이 매우 부족한 농촌의 현실을 감안, 톤백수매가 증가 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이를 확대 보급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톤백수매의 확대보급을 위해서는 수매장소와 시설, 수매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한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톤백수매의 확대보급에 필요한 지원방안은 수매장소 및 각 마을(농가)에 계량기 보급과 계량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방안과 수매용 공포대 지원 사업 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수매 장소 및 농가의 계량기 보급과 계량편의시설 설치 문제는 수매 장소의 계량자동화시설과 수매농가 계량기 보급사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사업들은 많은 예산이 필요하여 현실적으로 지원하기 힘든 여건을 감안하여 순차적이고 단계적으로 설치하고 지원하는 방법을 연구해 나가야 하겠지만, 수매용 공포대 지원 사업은 이미 우리 시가 톤백수매(공공비축미) 축진을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5면에 이어서

시에서는 톤백수매용 공포대를 구입, 농가에 지원해주고 있으나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가 톤백수매(공공비축미) 축진을 위하여 추진한 수매용 공포대 지원사업의 공포대 지원량을 기준으로 수매량과 공포대 지원량에 대한 지원 비율을 살펴보면, 2012년 : 32.5%(수매량 : 1,349포, 포대 지원량 : 439포, 예산지원액 : 4,741천 원) 2013년 : 22.6%(수매량 : 1,942포, 포대 지원량 : 439포, 예산지원액 : 4,267천 원)로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실례로 2013년 올해 서포면의 수매용 공포대 지원 비율은 총 수매량 : 602포대 중 지원된 공포대량 : 135개로 수매용 포대지원 비율은 22.4%정도에 불가하여, 어떤 농가는 지원받고, 또 어떤 농가는 지원받지 못하고 있어, 지원해주고도 공평치 못한 행정이라는 원성은 물론, 불평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내년(2014)도 톤백수매 예상량은 2,100포대 정도이며, 포대당 단가를 10,000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수매농가에 톤백수매용 공포대를 전량 지원할 경우 꼭 필요한 예산(豫算)금액은 21,000천원(2,100포대×10,000원) 정도입니다.

우리 시의 내년(2014년)도 세출예산서(歲出豫算書)에는 톤백수매용 공포대 구입비로 5,000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으로는 올해(2013년)와 똑같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톤백수매용 공포대전량을 지원하고자 할 경우 부족한 예산액은 16,000천원(21,000-5,000)입니다.

내년도(2014년) 톤백수매용 공포대 지원 예산은 수매용 공포대 전량을 지원할 수 있도록 책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톤백수매의 원활한 축진을 위하여, 수매농가에 톤백수매용 공포대전량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확보, 지원하실 의향이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지방도1002호선(노량-배둔) 직선화(본촌-동천, 가산-구호간 도로)사업에 관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도 1002호선(노량-배둔) 곤양면 본촌-동천 구간 도로와 축동면 가산-구호 간 도로는 시급히 직선화되어야 할 곳입니다.

먼저, 본촌-동천 구간 도로는 곤양면 본촌마을 삼박골 뒤편 산길을 꼬불꼬불 돌아가고 있어, 굴곡이 심하고 매우 위험하여 직선화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흥사일반산업단지의 물류수송을 위하여, 진입도로 4차선 확보장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공되면 흥사일반산업단지의 물류의 흐름은 원활해지고 완사지역과 검정지역의 교통편의성은 크게 개선 될 수 있으나, 서부 지역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곤양면 소재지에서 흥사일반산업단지로 가는 교통편은 조금도 개선되지 않습니다.

고로 곤양지역의 주민 특히 흥사일반산업단지에 취업한 노동자들의 출퇴근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사업입니다.

곤양지역 주민과 노동자의 출퇴근은 물론 서부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도1002호선(노량-배둔) 본촌-동천 구간 도로는 남해안고속도로와 평행선으로 직선화되어야 하겠습니까.

또한, 축동면 가화마을 가산오광대 전수관 뒤쪽 고개(고천도자기 앞)에서부터 구호마을 주유소 앞 도로는 굴곡이 심하고 매우 위험하며, 너무 먼 거리를 돌아가고 있어 시급히 직선화해야 할 곳입니다.

가화마을 가산오광대 전수관 뒤편 고개(고천도자기 앞)에서부터 구호마을 주유소 앞까지 2.8Km인 현 도로는, 고속도로와 평행선으로 직선화하면 1Km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어, 1.8Km 이상을 단축 할 수 있으며, 그곳의 고개 길에는 구 고속도로 부지가 남아 있어 공사의 시행에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고로 상기 2개소(본촌-동천, 가산-구호 간)의 도로 직선화 사업은 꼭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곤양면의 산업단지 조성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지방도1002호선(노량-배둔) 본촌-동천 구간 도로 직선화 사업과 가산-구호 간 도로 직선화 사업은 조속히 시행함이 옳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월등도, 진도 진입도로 개설공사(송도-머구섬-신소-통정마을) 상수도 관용 옹수관의 매설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

리겠습니다.

월등도, 진도 진입도로 개설공사(송도-머구섬-신소-통정마을)는 서포면 비토리 송도-머구섬-신소-통정마을 입구까지의 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장입니다.

서포면 전역은 하동군 청암댐에서 농업용수를 끌어와 사용하고 있지만, 비토마을은 섬지역이라 수로를 설치하지 못하여, 지금까지 한해상습지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비토 마을 주민들은 바다 건너편의 청암댐의 농업용 수로를 마을까지 연결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월등도, 진도 진입도로 개설공사장(송도-머구섬-신소-통정마을)에 상수도관과 농업 옹수관을 매설해두면, 차후 송도-머구섬 간 교량설치 사업 시 상수도와 농업옹수를 연결 할 수 있어, 민원의 해결은 물론, 경비와 예산의 절감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어 일거양득이라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비토 지역은 한해상습지역입니다.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인 농업옹수 확보를 위하여, 월등도, 진도 진입도로 개설공사장(송도-머구섬-신소-통정마을) 설계를 일부 변경 상수도관과 농업 옹수관을 매설하실 의향이 있는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갑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정만규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시민여러분! 장시간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삼수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시민의 소리를 대변하여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 하시는 최갑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희망도시 사천을 만들기 위해 변화와 혁신을 이끌고 계시는 정만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선거구 출신 새누리당 이삼수 의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13년을 보내며 아쉬움에 돌이켜보면 새롭게 맞이하는 새해에 대한 기대감과 이루지 못한 일에 대한 실망과 낙담이 뒤섞인 한해였습니다. 그렇지만 희망이라는 이름으로 2014년을 기대해봅니다.

우리 사천시가 더 멀리보고, 더 먼 길을 가기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해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2014년에는 서로 힘을 합쳐 더 먼 길을 함께 가기를 희망하면서 다음 몇 가지를 지적하고 그 해결책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를 듣고자 합니다.

도심을 오가는 대형차량이 점차 늘어나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고 그 불편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추정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화력발전소 전용도로'와 '지방도 1016호선 우회도로' 조기 개설 문제, 하나로농협 로터리부터 운동장까지 새로운 환경변화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문제와 '마도-저도 간 해상 송전 선로 정비문제' 그리고 '화력발전소 송전과 운영에 지역 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 문제' 등을 짚어하고자 합니다.

먼저, 화력발전소 전용도로 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신 삼천포 화력발전소를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일원에 56만평 규모로 2015년 4월에 착공하여 2019년 6월 완공 계획으로 금년 4월에 발전사업허가를 받아 현재 SPC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전소 건립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정서는 반대와 찬성이 양분화 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으므로 부득이 국가적 차원에서 발전소가 건립되어야 한다면 우선적으로 전용도로 개설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까.

이는 발전소 건립이 장기간 소요될 뿐 아니라, 완공 후에도 물동량의 증가로 대형차량들이 도심을 통과하게 되어 시민생활에 불편을 가중시킬 것이며, 심지어 지금 현재도 하루 수십, 수백 대의 초대형 화물차량들이 동지역에서 차량통행이 가장 많은 하나로농협 로터리를 통과하고 있어, 운전자나 보행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데 이런 문제들이 선 해소되지 않고서는 발전소 건립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잠재우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또한, 시가지 교통량 분산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와 지역 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발전소 건립 착수 전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이 문제에 어떻

게 대응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도 1016호선 우회도로 조기개설'에 관한 건입니다.

삼천포 신항 물동량 수송과 교통체증 해소를 위하여 동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인 지방도 1016호선 우회도로 개설사업을 2006년 착공하여 2015년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향촌 신호동 사거리에서 운동장 진입로 구간은 예산을 확보하여 시공 중에 있으나, 용강주공아파트 잔여구간이 연결되지 않아 일부 구간만 개통하고서는 사업효과도 없고 특히 가장 심각한 운동장 주변 교통 흐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신항이 준공되고 제주 간 페리가 운행되어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므로 점차 물동량이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며, 신항 부지에 터를 잡은 제조업체의 물동량도 늘어가고 있어 화력발전소와 인근의 곤단개발 등 지금의 물동량 흐름에도 벽찬 도로여건을 더 이상 악화되기 전에 숨통을 터줄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므로 운동장 진입로부터 용강주공아파트 잔여구간 740m에 대한 필요 사업비 예산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본 의원은 사업의 조기마무리 필요성과 당위성을 볼 때, 만일 사업비 예산확보가 힘들다면 기체를 발행해서라도 도로를 마무리해야 될 만큼 시급한 숙원사업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벌리동 하나로농협 로터리부터 공설 운동장 입구까지 인근 지역의 용도 변경에 대한 질문입니다.

수산물 중심 항구였던 동지역은 점차 도시의 주 기능과 동력이 많은 변화를 겪고 있으며, 주민들의 실생활은 이미 그 흐름에 적응을 하고 있어 그 변화의 흐름에 행정적인 배려도 필요한 시기라 생각합니다.

즉, 동지역에는 선구, 동서지역과 팔포매립지로 대변되는 동서금동 지역이 대표적인 상업지역이었으나, 도시의 중심기능인 상업지역 역할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동지역은 주거패턴의 변화와 발전 추세가 벌리 하나로농협 주변지역으로 이동되어 사실상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만, 이 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상업적 역할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도시의 용도지역 변경은 인구가 증가되어 주변여건 변화 등이 선행되어야만 가능하며 용도지역 상향변경이 다소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동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이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므로, 현재 추진 중인 2030 도시계획에 반영하고 향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도-저도 간 해상 송전 선로에 관한 내용입니다.

당초 본 구간의 송전 선로 높이는 21m로, 사천대교 높이를 기준으로 설정한 것이라, 선로의 노후 또는 여러 외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현재 그 높이가 17m밖에 되지 않아 사천만을 끼고 기압 활동을 하는 우리 지역의 대형구조물, 조선기자체, 해양프랜트 등을 제작하는 기업들의 물류 이동에 큰 장애가 되고 있어 높이에 제약을 받는 생산품은 부득이 녹도-창선 사이로 통과해야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바닷물의 흐름이 센 지역을 통과하게 되므로 별도의 예인선을 추가로 배치하여 결과적으로 물류비가 증가하므로 가뜰이나 힘든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물류비 증가와 제품 운송 안전조건에 미달되어 메이저 조선사로부터 물량 수주에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인근 하동의 갈사만 조선특구 등과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는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덧붙여 몇몇 기업에서 메이저 조선사로부터 수주한 제품을 납품하기 위한 기일을 맞추기 위해 한전 측에 새해 초 1월 말이나 늦어도 2월 초까지 선로 높이를 정상화 해주기를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으나, 한전 측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늦어질 수도 있다는 소극적 입장을 취하고 있고, 특히 조속한 작업을 위해서는 사천시의 행정적인 업무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떤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발전소 증설과 관련하여 지역경제와 주민생활 그리고 국가적인 필요에 의한 전기 생산이 상생하는 방안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밀양송전탑 건설 문제가 한전과 밀양주민 그리고 외부세력의 가세로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있어 이와 관련이 있는 삼천포화력발전소 증설에 특별히 주민들의 관심이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우리 지역에 반대하는 움직임이나 요동은 미미한 것으로 보이나, 밀양사태를 보면서 사업초기에 지역주민의 마음을 제대로 추스르지 못하거나 시민정서를 자극하고 자칫 잘못된 접근을 하게 되면 '나비효과'를 일으켜 삼천포 화력 증설건립도 심각한 난관에 부딪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러한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화력본부와 지역민들이 서로 윈윈하는 방안, 상생하는 방안을 조속히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하순에 삼천포화력본부가 14개 중소기업 관계자를 초청하여 중소기업과의 소통 활성화와 제품홍보를 위해 '2013년 중소기업제품 사업소 구매담당회'를 마련했다고 하는데, 발전소 측의 지역 상생 취지를 일회성 홍보용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보다 구체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번 발전소 증설 사업에 우리 지역의 산물이나 생산품, 제조기술과 소모품 그리고 인력까지 총망라하여 적어도 70%이상을 의무적으로 지역 기업을 참여시켜, '대지역민 상생사업'으로 자리 잡기를 촉구하면서 아울러 집행부에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화력발전소 증설팀과 협의를 이끌어 내기를 부탁드립니다.

제 개인적인 전력 생산에 대한 견해는, 물론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만, 합의에 의하여 발전소 건립이 시작된다면 제대로 된 발전소가 건립되어 국가적 차원에서 전기는 생산하되, 전기를 생산하여 판매된 이익금의 발전소 인근 해당지역이나 송전 선로가 지나가는 피해예상지역에 100% 환원하게 하는 방안이 순기능일 수 있겠다는 것, 즉, 전기를 생산하고 판매하여 발생한 순이익을 해당 지역에 쏟아내고 국가는 원동력을 생산하는 것에만 만족하는 것으로 접근하게 된다면, 화력발전소나 원자력 발전소 인근지역이 국민이 기피하는 지역이 아니라, 살 만하고, 살고 싶은 지역, 선호하는 지역이 될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확신하면서, 발전소를 건립하고자 한다면 당연히 그 입구로는 전용도로 개설일 것이며, 그 출구로는 지역민들과 함께 공존하는 발전소가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항공우주테마파크 부지 내 사천읍면민의 정서에 부합하는 컨벤션 센터 건립을 건의드립니다.

컨벤션 산업은 고부가가치, 무공해 산업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컨벤션 센터 건립에 대해 신중한 접근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컨벤션 센터를 건립해 국·내외 컨벤션 유치와 개최 지원, 세미나 및 학회를 유치함으로써 지역의 고용창출과 소득증대에 이바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으며 전시와 공연, 이벤트와 같은 문화산품을 활용하여 지역문화 활성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첨단항공우주산업도시로서 첨단산업과 과학기술 및 산업기술 등의 전시·홍보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도시 브랜드 및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늘어가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을 시민과 함께 할 수 있고 사천지역의 KAI, BAT 등 기업들의 회의장소와 지역민의 문화 활동 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문화와 예술 그리고 경제가 함께 공존하는 컨벤션 센터 설립을 다시 한 번 건의드립니다.

조속한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를 손꼽아 기대하는 시민들에게 시원한 해답을 드리지 못하고 해를 넘기는 답답함이 저의 마음을 더욱 좁게 하지만, 본 의원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박근혜 정권부 조속히 우리 사천의 여러 인재들이 잘 배치되어 있고 인적구성과 우리 사천시를 아껴주시는 대통령을 비롯한 도지사, 국회의원 등의 각별한 관심을 사천으로 이끌 수 있는 호기라 생각하고 더불어 우리 시민들의 열망이 하나가 되어 조만간 우리의 희망이 현실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존경하는 정만규 시장님! 그리고 열악한 예산으로 날로 강해지는 시민들의 복지에 대한 요구에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에 연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800여 공무원 여러분들의 그간 노고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아쉬움도 많았지만 특별히 사천인으로 뿌듯한 일들도 많았던 2013년을 뒤로하고 본 의원의 마지막 시정 질문을 드립니다.

지난 4년 우여곡절 속에서 하나하나 얻어왔던 의정활동들이 이제 저의 작은 역사가 되었습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드립니다.

6면에 이어서

◆한대식 의원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천시(사천읍, 정동면, 사남면, 용현면) 가선거구 출신 새누리당 한대식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권익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최갑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애쓰시는 정만규 시장님 이하 8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세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설관리공단 또는 사업소 직제신설에 관한 사항으로서, 현재 경남도내 대부분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공단이나 사업소 설치 승인을 받아, 신설 운영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 관내에 산재 되어있는 각종 공공 시설물을 민간이나 단체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시설관리 및 운영비 지원 등 공공시설물을 활용하는 시민들은 물론, 각급 단계에서 수시로 여러 가지 잡음이 발생하는 현실을 볼 때,

우리 시에서 일괄적으로 통합 운영함으로써 불합리한 사항들이 개선되고 효율적인 운영이 될 것으로 확신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또는 관리사업소 신설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의향이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용현면 금문리 도로 확·포장에 관한 사항으로서,

신도시 개발에 따른 진입로 개설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계획한 용현면 덕곡리, 금문리 일원에 2009년부터 2017년까지 9년간에 걸쳐 130억 원의 예산으로 시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현면 덕곡리 일원은 이미 개설되었으나 미진한 부분을 2014년도 2억원의 예산으로 사업이 마무리 될 것으로 전망되며, 금문리 일원은 국도3호선에서 마을 입구에 로터리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미관상 좋지 않기 때문에 정비가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용현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중 기반 확충과 해안도로 경관개선, 지역역량 강화 사업에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국비 32억 원, 지방비 13억 원 총 45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금문마을이 투자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고, 시청앞 신시가지 도로가 국도3호선까지 시원하게 개설되어 있으므로, 계속 사업으로 금문마을을 지나 해안도로까지 연결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신도시 개발과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 할 것으로 전망 됩니다. 그러나 금문마을 도로 확·포장 사업비가 2014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문마을 주민은 물론, 인근 마을 주민들까지도 원성이 많을 뿐 아니라, 계속사업으로 계획된 기간 내에 도로를 확·포장해 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현재 시청 앞 덕곡마을에서 국도3호선까지의 투자한 금액은 얼마인지? 국도3호선에서 금문마을 쪽으로 앞으로 얼마 정도의 소요예산이 투자 될 것인지? 구간의 폭과 길이는 얼마 정도 되는지? 언제까지 마무리 될 것인지? 또한, 국도3호선에서 해안도로까지 연결이 필수적이라고 보는데, 시장님의 의향이 어떠한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모범 협동조합 자립화 시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2년12월1일 협동조합 기본법이 공포되고, 2013년3월23일 동법 시행령이 공포되었지만, 2012년12월18일 시행령이 공포되기 전에, 우리 시 협동조합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계획을 수립, 용역비 20,000천 원으로 같은 해 12월31일 계약을 해서 2013년5월1일 최종 보고서를 납품 받았 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 협동조합 지원조례를 2013년5월10일 경남에서 가장 먼저 공포 했습니다.

그러나 5월1일 기 납품된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보고서를 활용한 조속한 협동조합 운동의 확산과 전력실정에 맞는 5단계별 4대 특화사업 7대 전략분야에 대한 본 제도의 원활한 조기 정착을 위해, 시 홈페이지, 시보, 지역신문, 인터넷 등을 활용, 홍보하고, 전문기관을 통하여 설립 절차와 기대효과, 일자리 창출 등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컨설팅, 교육, 홍보를 해서 파급시켜 나갈과 동시에,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서, 다양한 협동조합이 많이 설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인데도,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납품 이후 이러한 과정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본 업무를 접한 일부사람 외에, 일반시민은 잘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공포 후 18일 만에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추진 계획을 수립, 용역비를 들여 의뢰하고 최종보고서 납품과 지원조례 공포, 지난 5월 추경 시 예산에 반영한 것까지는 발 빠르게 잘 했습니다만, 최종용역 보고서 활용 계획에 의한 컨설팅, 교육, 홍보가 전혀 추진 안 되었기 때문에, 대부분 시민들이 관심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왜 손을 놓고 있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3년7월4일 기준으로 경상남도 12개 시·군에서 52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되는 등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시는 한 건의 신고 설립도 없습 니다. 이는 교육, 홍보 부족과 시 집행부의 단일한 자세였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또한, 시민들 대부분이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이 무엇인지, 설립은 어떻게 하는 건지, 기대효과는 어떠한지 잘 모르고 있는 실정에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수당 또는 보상을 확보하여, 전문가관으로 하여금 우리 시 연구용역 최종보고서의 7대 협동조합 전략분야에 61개 명칭의 협동조합과 266개의 주요사업 사례들을 제시해놓았습니다.

이러한 주요 사업들을 분석, 신규모델로 삼아서, 협동조합 설립 가능한 관계자와 일반인에 대한 교육, 홍보를 관련부서의 협조를 받아 읍·면·동을 순회 하면서 선행하여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용역 최종보고서 납품 후 교육, 홍보를 하지 못한 사유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모범협동조합 자립화 시범사업 선정 시 지난 7월8일 도지사에게 커피숍 운영, 천연제품과 공예제품 판매를 신고 설립한 업체 한 곳밖에 없는데도 8월30일 계획을 확정하면서, 단순행태의 직접 지원만 고려를 하였고, 역시 9월4일 신고 설립한 주·야간운전 대리 및 각종 위탁 운전사업, 커셔비스 및 차량 렌트 사업을 하는 협동조합을 포함,

2개 업체에 대해 운영도 하지 아니한 시점에서 모범 업체가 어느 업체인지 심의, 선정하는 것은 불합리하였다고 생각하며,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를 해서 적어도 신고 설립한 업체가 몇 개 더 늘어나서 심의, 선정해도 될 것인데 왜! 그렇게 빨리 심의, 선정했는지 그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3년5월22일 기획재정부에서 주최한 제2차 협동조합 지자체 협의회(기획재정부차관보, 협동조합정책관, 광역지자체 협동조합관련국장)에서 건전한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을 위해, 개별 협동조합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지원이 아닌, 교육, 홍보, 컨설팅 등 간접지원에 입각한 지원 원칙을 정립한 바 있고, 2013년7월4일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시·군에서는 이러한 간접지원 원칙에 따라 협동조합 정책을 추진토록 문서로 서 지시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7월4일 문서 시달 이후, 8월30일 모범 협동조합 자립화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10월7일 선정을 해서 10월22일 4천만 원의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통지를 했습니다. 사업계획상의 철거, 목공, 전기, 도장 등 9개 분야의 내부공사와 커피머신기, 냉장고, 테이블 세트 등 3개 분야의 집기구입은 직접 지원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직접 지원으로 판단되면 보조금으로 교부한 2천만 원과 교부 결정된 4천만 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읍·면 지역과 동지역의 균형 발전을 염두에 두시고 시정을 추진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용석 의원

사천시 가선거구(사천읍, 정동면, 사남면, 용현면) 출신 무소속 최용석 의원입니다. 바쁜 일상에도 우리 의원들의 의정 활동에 애정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시민들의 민의 대변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고가 많으신 최갑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 여념이 없으신 정만규 시장님을 비롯한 800여 공무원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사천제2일반산업단지 해안도로 부설관리와 진주시의 뿌리산업단지 추진에 대한 우리 시의 적극적 대처 방안, 사회복지 시설의 보조금 부정 문제, 마을택시 도입 등 시내버스 운영체계개선 문제 및 수산물 안전 대책

등에 관해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22일 제17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본 의원이 문제 제기했던 사천제2일반산업단지 해안도로 불법 점유는 며칠 전 정리되었습니다.

2007년 이후 7여년의 시간을 끌며 시민들에게 많은 고통과 불편을 안긴 문제가 5분 자유발언을 계기로 각 언론사의 집중 보도 후야야 해결되는 모습을 보고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지금껏 많은 시민들이 해안도로에 쌓아둔 조선표의 구조물로 인해 교통 불편 및 안전사고 위험요소를 해결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던 일이 언론의 집중적 보도로 해결되니 말입니다.

불과 20일 만에 할 수 있는 일을 왜 그렇게 방치했는지 이유가 궁금합니다.

해당 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조선소 3공구 중로의 폐도 및 도크 설치를 위해 준공을 못했고 그에 따라 도로상 방치된 구조물에 올 초까지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또한 일부 공구가 미 준공되어 전체 산업단지 준공을 못했다고 하는데 참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아파트나 일반 건축물은 준공 승인이 나와 제대로 거주하고 재산권도 행사하게 하는데 이제껏 준공도 나지 않은 산업단지에서 조업은 어떻게 했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기업체가 활발히 생산 활동을 해야 지역경제도 살고 발전도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기분을 지켜야 되지 법을 어기고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막무가내로 하는 것은 기업의 도리가 아니라 할 것이며 적극적 해결 노력을 기울인 행정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3공구 미 준공으로 별다른 조치를 못했다고 하지만 실제 도로상 불법 구조물이 있던 곳은 2공구였습니다.

적극적이고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해 주기를 바라며 다음 몇 가지 질문 드립니다.

지난 7년간 사천제2일반산업단지 일부 도로와 시설물에 대해 준공검사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 시행자 단 지 준공 신고를 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천시가 한 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아울러 관내 각종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방치되거나 지연 중인 사업지구에 대해 조속한 정상화 방안들이 있으면 답변 바라며, SPP 앞 해안도로와 같은 일을 예방할 방안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문드릴 것은 진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촌 뿌리산업 집적화단지과 관련한 것입니다. 진주시는 걸으로는 서부경남 발전을 위해 이웃 자치단체 간 상생과 협력을 외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 11월14일 진주상공회의소에서 주최한 진사권역 미래 성장 동력산업의 효율적 추진 방안을 위한 심포지엄 축사에서 진주시장은 "사천에서는 뿌리산업에 관해 아무 것도 모르면서 오해하고 있다. 그것도 특정 몇몇 사람이 떠들고 다닌다."라는 발언을 하는 등 결과 속이 다른 행태를 보이고 있는 현실입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이덕근 연구원의 '우리나라 뿌리산업의 현황과 발전방향'에 따르면 뿌리산업이란 소재를 부품을, 부품을 완제품으로 생산하는 기초공정산업을 말하며 금형, 소성가공, 열처리, 용접, 주조, 표면처리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며 에너지와 환경문제가 우리나라 뿌리산업의 생산성 저해의 주 원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과연 진주시의 말처럼 친환경적이며 전혀 공해를 유발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 습니다.

금형, 소성가공, 열처리, 용접, 주조, 표면처리 산업은 누가 봐도 공해를 유발하는 산업임을 알 수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하늘이 가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주시는 막연하게 공해가 없다고 주장하며 사천시민을 기만할 것이 아니라 사천시민의 행복과 생존권을 위해 산업단지 추진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할 것이며 우리 시 집행부에서도 진주시의 산업단지 조성을 저지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걸으로 상생과 협력을 외치며 일방적으로 뿌리산단을 추진하는 진주시에 대한 우리 시의 대응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사천하면 항공도시라고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항공

국가산업단지는 사천시에 두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항공과 관련 없는 진주시가 자꾸 우리 시의 발전 전략에 손가락을 얹는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경남도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항공국가산업단지와 관련하여 진주시의 무임승차에 대한 향후 전략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지난 10월 28일 경상남도에서는 도 분청 및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회복지분야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277건, 1백4십3억4천8백만 원의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도 9월 5일부터 13일까지 경상남도로부터 감사를 받았으며 19건, 4억4천6백2십1만4천 원을 부당하게 집행하여 시정, 환수, 추징 등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외에도 2013년 우리 시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감사와 조사를 통해 7곳의 시설이 적발되어 사정당국의 수사 및 사법처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농담처럼 하는 말 중에 나랏돈은 먼저 보면 임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농담 같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고 화가 납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약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혹은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곳들인데 이를 개인의 사리사욕의 수단으로 여겨 비리를 저지르는 것은 분명 사회악이라 생각합니다.

몇몇 사람들의 그릇된 행동으로 인해 다수의 사회복지시설 운영자들이 겪는 고충도 그들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을 지도 감독하는 공무원의 수가 절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다른 부분의 인력을 조정해서라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사회복지시설들의 보조금 부적절 사용이 관행화되어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개선 대책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감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전담인력 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의정활동 초기부터 사천시의 대중교통 운영에 대해 불합리한 부분의 개선과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일부는 개선되어 시민의 호응도가 높은 것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대중교통 개선과 관련하여 가장 큰 변화는 역시 사천·삼천포 통합 이후 구간별로 부과되던 시내버스 요금 체계를 15년 만에 개선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을 안길까지 시내버스를 운행하기 위해 도입된 소형버스는 도입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어 당초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시내버스 운행도 간선도로를 운행하는 버스와 간선도로에서 멀리 떨어진 마을을 운행하는 지선버스 체계로 개편하여 시내버스 이용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마을마다 시내버스를 충분히 배차하는 것은 경제적으로나 물리적으로 부담이 크다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마을버스와 마을택시 도입을 건의합니다.

마을버스는 대도시에서 시내버스가 가지 못하는 주택단거리를 중심으로 단거리로 운행하며 대중교통의 한축을 담당함은 물론 대중교통 이용률 향상과 교통난 해소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충남 아산시, 서천군에서는 농촌마을 등 교통 소외지역 주민을 위해 마을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만족도도 높다고 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시내버스로 모든 마을을 운행하는 전략에서 마을버스를 도입해 지역 실정에 맞는 교통행정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북 칠곡군, 전남 나주시의 경우 시내버스 승강장으로부터 일정 거리 떨어진 오지마을 주민을 위해 마을택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칠곡군은 승강장으로부터 2km 떨어진 마을 주민이 이용하고 회당 요금은 1,000원을 부담하며 나주시의 경우는 승강장으로부터 0.5km 떨어진 마을이면서 택시체제로부터 요금이 3,000원 이상 나오는 거리에 위치한 마을 주민이 1회당 500원의 요금을 내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마을택시를 도입하면 많은 예산이 든다고 생각하지만 오지마을까지 시내버스를 빈차로 수시로 운행하는 것보다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7면에 이어서

우리 시도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교통체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사천시 시내버스 운영활성화 대책이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또 간선도로는 시내버스로, 기타 지역은 마을버스를 도입해 시내버스 이용자들의 편의를 증진시켜야 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전남 나주시, 경북 칠곡군처럼 오지마을 주민들을 위해 시내버스보다는 마을택시를 도입하는 것이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킬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또한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지역 학생들의 면학과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다른 자치단체에서 시행중인 학생 교통비 지원 제도가 우리 시에도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드릴 것은 동일본 대지진 이후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오염과 관련한 수산물 소비 위축과 관내 학생들의 안전한 급식을 위한 대책에 대한 것입니다.

사천하면 항공과 수산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동지역은 수산업이 경제의 근간인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오염 우려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루 빨리 정정 납해안 수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누출과는 관련 없음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지역경제를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모 방송사 보도내용을 보면 시장이나 마트 등에서 소비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방사능 장비가 방사능을 제대로 검출할 수 없다는 것으로 소비자에게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이라는 신뢰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해양수산과와 지역경제과는 수산물의 정기적 수거 검사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방사능에 안전한 수산물이라는 홍보를 강화하고 정정 납해 수산물 식사회 등을 실시하여 소비촉진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방사능 공포로 인한 수산물 소비 위축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9월 30일 사천시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가 공포되어 지역 학생들에게 지역의 친환경 급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제반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사능 오염은 당장 몸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일정량 이상 축적되어야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당장 눈에 띄지 않는다고 그냥 넘길 것이 아니라 먼 미래를 위해서라도

방사능 없는 급식을 위한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우리의 미래인 학생들을 위해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지원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다음주가 지나면 다사다난 했던 계사년이 저물고 갑오년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해 잘 마무리 하시고 밝아오는 갑오년에는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의 건승을 바라며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명순 의원

정만규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최갑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방송을 통해 시청하시는 시민 여러분! 존경하고 고맙습니다.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총무위원회 소속 여명순 의원입니다.

오늘 저의 시정 질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 시의 노인복지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몇 년간 우리 시의 노인요양시설을 관리 감독해온 사회복지과의 편파적인 운영에 대한 끊임없는 민원을 접하였습니다. 이러한 의혹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께 확인받고자 합니다.

먼저 2014년도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신청 안내문을 살펴보면, 13년도에 증개축 또는 개보수 지원대상은 예산지원의 형평성을 위해 지양해야 한다고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4월 사회복지과에서는 2012년도 7억7천4백만 원, 2013년도 1억3천만 원을 지원받은 사천의 한 요양원의 증축비를 다른 시설의 2배가 넘는 1억2천만 원을 신청 받아 심의안건에 올렸습니다.

또한, 시장님께서 위원장으로 계신 사천시 사회복지협의회체의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체 심의위원회는 통상적으로 서면심의를 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도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시장님께서서는 서면심의를 제대로 된 심의위원의 심의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무나도 형식적인 심의이며, 또한 회의서류를 준비하는 집행부의 의도대로 심의될 공산이 크므로 어떤 측면에서는 심의위원회의 본연의 임무는 방기한 채 집행부의 의견에 정당성만 부여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부작용이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받아본 심의자료를 보면 심의의 기준이 되는 예산 신청 기준조차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올해의 경우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서면심의 내용을 수정하여 두 차례

나 동일 사안으로 심의를 실시하였습니다.

내용을 무작위로 바꾸고 심의위원에게는 서면으로 서명만 받으면 되는 이런 심의가 과연 존재할 이유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어떤 기준으로 심의하였고 어떤 논의를 거쳐 어떤 결과를 도출하여 전 시설을 경상남도에 접수하게 되었는지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몇 번이나 자료요청을 하였으나 제대로 된 답변이 나오지 않아 다시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2014년도 본예산서에 나와 있는데 어느 곳도 국도비지원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사실 지원을 받지 못한 이유는 그동안 경남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은 노인요양시설들이 확보되었고, 시군별 평균 입소율이 85%이 하인 시군은 신청대상에서 제외하였기 때문이라는 걸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 신청 안내서에 첫 번째 기준으로 버젓이 나와 있는 입소율 조항을 사천시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무모하게 그런 소란을 일으키며 각 시설로부터 신청서를 받아 접수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시의 요양시설들의 기능보강을 위한 국도비 확보 노력보다는 무리한 입소율 계산과 신청서 접수, 심의위원회 진행으로 행정의 불신을 심어준 결과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한 문제의 그 요양원은 작년과 올해 중증장애인시설 설치를 위한 공문을 여러 차례 접수한바 있으며 이 또한 사회복지과와 연계하여 온갖 의혹이 난무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그 요양원에서는 올해 5월에 이사회를 거쳐 중증장애인시설 설치를 위한 안전처리와 정관변경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보다 앞서 해당부서에서 먼저 그런 공문이 접수된 것은 상식적으로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경상남도에서도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과에서 지속적인 변경신청을 요구하는 것 또한 의구심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요양시설은 2014년도 예산에도 녹색공간조성명목으로 도비 1억2천만 원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한 곳에 집중되는 예산편성이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서는 우리 사천시 전 공무원의 수장으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기한 이런 부분에 대한 제대로 된 해명만이 여러 의혹에 대한 해결방안이 될 것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을 잘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이 우리시 노인복지를 위한 책임이고 역할일 것입니다. 행어나 그런 역할에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는 못하고 군림하고 차별하고 권력을 남용하게 되는 경우는 없는지 보다 더 면밀히 살펴서 한걸 의혹이 없도록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우리 시 공무원의 보육수당에 관한 것입니다.

2014년도 본예산 심의하는 과정에 총무과에 올려져있는 약 4억 3천만 원의 보육수당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대다수의 지자체가 올해부터 정부의 무상보육 확대시행으로 직원들에게 지급되던 보육수당을 따로 지급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 예산에 반영한 부분에 대해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편으로는 영유아 보육사업 재원의 지방비 부담완화를 주장하면서 이러한 예산을 시비로 반영하는 것은 국민의 심부름꾼인 공무원의 자세가 아닐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영유아 보육법 개정 등을 통해 현재처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대신 보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을 폐지하고자 하고 있으므로 우리 시 또한 보육수당 폐지와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를 통해 공무원들의 보육의 질을 높이고 직장생활을 함에 있어 더 큰 능력이 오를 수 있도록 조치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환경미화원의 순환배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6월 시정질문을 통해 환경미화원의 순환배치 문제에 대해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환경사업소를 비롯한 사천시가 이 문제를 원활히 해결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을 진행한 부분은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청소차량을 운전하던 환경미화원 12명 중 5명이 1천만 원 넘는 연봉이 깎이더라도 운전직으로 전환하여 차량운전을 계속하고 싶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모두 같이 환경미화원으로 채용되어 도저히 거리청소는 할 수 없다는 이분들의 의견에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또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며 동료에게나 시민들에게 설득력을 가지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차량운전만이 순환배치에서 제외돼 특혜 아닌 특혜논란이 있어왔는데 어렵사리 협의한 부분에 대해 이렇게 개인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을까 하는 생각과 이러한 부분이 전체 환경미화원의 분위기가 사기진작에도 찬물을 끼얹는 게 아닌 가 우려가 됩니다.

이번 일로 인해 협의회에서 단체협상으로 결정된 순환보직 문제가 당장 2014년 1월부터 시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진행이 되지 못했는지 우려가 되며, 또한 이 일로 인해 환경미화원 운전담당의 임금에 영향을 줄까 걱정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이러한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순환배치 문제는 내년 1월부터 확실하게 시행해가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시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췌록 본 의원의 질문과 제안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제 2014년도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 총무과에 올려져있는 약 4억 3천만 원의 보육수당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75회 2차 정례회 시정 답변

◆정만규 시장

존경하는 최갑현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12만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 오신 그 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면서, 먼저 조성자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천문화재단, 사천세계타악축제, 박재삼문학관 운영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천문화재단이 법률적 검토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사항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는 법령상 하자 없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시정 지도하였고, 사천문화재단은 2013년 7월 24일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경상남도문화예술진흥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전문 예술 법인·단체 지정을 받아 향후 각종 축제나 행사시 법령상 하자 없이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게 절차를 득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 등에서 기부금을 모집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이행토록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사천시 박재삼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박재삼 문학관 운영위원장 사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불명확한 정산 부분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서를 재검토 후 환수토록 하겠습니다.

박재삼문학재단 관련 회의나 업무추진에 향후에는 문학관에서 개최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공무원 신분으로 보조금을 지급받는 단체의 사무국장 업무를 수행하지 않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심사료를 지급하는 대회인 경우 명확한 심사

료 지급 기준을 마련하여 객관성 있고 공정한 업무처리가 되도록 하겠으며, 위원장의 사퇴 등에 대하여는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처리할 계획입니다.

단체의 투명성에 따른 예산차별화와 관련하여 주관단체의 사업계획과 정산보고서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사천시 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보조금 단체에 대한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최수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톨백수매용 공포대 전량 지원을 위한 예산확보 의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입 장소 및 농가의 계량기 보급과 계량편의 시설의 설치에 시 재정상 많은 예산이 필요하여 단계적으로 방법을 모색 하겠으며 출하농가에 톨백 수매용 공포대 지원에 대하여는 대상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 필요한 사항을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1002호선 중 본촌-동천 구간과 가산-구호 구간 도로 직선화 사업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험골곡도로 개선이 시급한 구간은 안전행정부에서 추진 중인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제2차 중기계획』에 반영하였으며, 곤양면 환덕고개, 죽동면 용수고개, 구호고개는 총 1.7km 구간에서 사업비 44억원으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개선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방도 노선변경과 확·포장사업은 도로관리청인 경상남도에서 시행해야 될 부분으로 고속도로 폐도를 이용한

지방도 1002호선 직선화 사업은 많은 사업비

가 소요되어 단기간 내 시행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월등도·진도 진입로 개설공사와 관련하여 상수도관과 농업용수관 매설 의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월등도·진도 진입로 개설공사장 설계를 일부 변경하여 상수도관과 농업용수관 매설의향을 절감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향후 히토지역 개발에 따른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상수도관 매설, 갈수기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농업용수관로 설치는 도로의 이중 굴착 방지 및 향후 예상되는 수요를 감안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력발전소 전용도로 개설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용도로 총길이는 5,800m로 사업비가 약700억원 정도 소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발전소 건립 착수 전에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지역국회의원, 지역주민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정부 건의 등 다각적인 노력을 다하여 조기에 국비지원이 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1016호선 우회도로 잔여구간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잔여구간은 도로 연장이 740m로 80억원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되며,2014년도 당초예산에 8억원이 반영되었고 잔여예산에 대하여는 2017년까지 단계별로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호광장 삼천포농협 로터리부터 공설운동장 입구까지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이 건물은 2030 사천 도시기본계획안에 반영하여 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향후 도시기본계획변경이 승인되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상업지역으로 변경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마도-저도 간 해상 송전 선로 높이 정상화관련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 경남지역본부에서 기존 삼각전주를 관형철탑으로 교체하여 전력선 높이를 17m에서 23m로 높이는 사업으로 2014년 3월 5일 납기에정도로 계약 체결되었고 설치 공사는 약10일 정도 소요되어 계획보다 다소 지연이 예상됩니다. 우리시에서는 조속한 공사를 위해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원형철탑 설치부지 위치를 결정하였고, 마도에 현재 설치중인 둘레길을 공사 진행도도로 이용토록 하였으며, 당초 계획된 기간 내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한국전력공사에 자재납품과 설치기간을 단축토록 촉구하겠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와 지역민의 상생방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삼천포화력본부에서 개최한 「2013 중소기업 제품 구매상담회」 발전 방안과 관련하여 관내 중소기업체 제품 품목과 관내 중소기업체의 구매상담회 수요 현황을 파악하여 지속적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상담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시 발전과 상생을 위해 지난 6월 신삼천포화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지역주민 채용과 지역제품의 우선 구매, 지역업체 참여 등의 주민요구사항을 한국남동발전

에 전달하였으며, 내년 1월 법인이 설립되면 협의를 통해 우리시 요구사항이 적극 관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면에 이어서

마지막으로 항공우주테마파크 부지 내 컨벤션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천항공우주테마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문화를 주제로 조성한 문화공원이며, 조경시설 등 설치할 시설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건의하신 컨벤션센터에 설치할 시설물이 구체화되어 윤곽이 나타나면 등 부지 내에 설치가 가능한 시설인지를 판단하여 가능여부에 따라 설치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한대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또는 관리사업소 신설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도 2016년 사천바다케이블카사업이 완공되고 나면 전문화된 시설관리와 기업 경영마인드 도입이 필요할 실정이나, 도로 연장이 900m이고 폭이 25m로 도로개설에는 100억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도비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중장기 재정계획에 따라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청-금문해안도로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도3호선에서 금문마을 해안도로까지의 도로 개설이 필요한 실정이나, 도로 연장이 900m이고 폭이 25m로 도로개설에는 100억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도비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중장기 재정계획에 따라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최용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제2일반산업단지 일부 도로와 시설물에 대한 준공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천제2일반산업단지 3공구의 당초 사업시행기간은 2007년 12월 31일까지였으나, 사업시행자인 SPP조선의 선박진수시설인 도크게이트 설치로 인한 사업계획 변경과 버스베이, 공장부지 내 중로 폐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보완요구와 관련하여 주민의견수렴 등 주민동의를 위한 행정적인 절차 이행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2013년 12월 6일 도 주관으로 사업시행자, 관련부서 담당공무원이 참여하여 준공검사를 위한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점검결과 부서별 지적사항이 많아 현재 보완 중에 있고, 보완이 완료되면 준공검사 완료 일정에 맞춰 도로, 공원 등 각종 시설물의 인계인수절차를 즉시 이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관내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한 산업단지 정상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지연중인 산업단지는 9개로서 전반적인 경기불황으로 사업추진이 늦어지고 있으나, 산지복구비용 납부, 토지보상 협의, 사업계획 변경 등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촌농공단지지는 사업시행자의 최종 부도 후 HK조선측과 소송이 제기되었지만 2013년 6월 대법원에 패소하였습니다.

현재 그린바이오, 브이텍씨엔이 등 2개업체가 HK조선 및 파산관재인 측과 협의 중에 있으며, 최종 1개업체가 결정되면 사업추진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SPP앞 해안도로 예방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추가 야적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선박진수 작업 시에는 우회도로를 활용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SPP앞 해안도로에 조선블럭 등 적치물에 대하여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도로 순찰 및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뿌리산업단지 추진에 대한 우리시 대응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사천시민참여연대와 사천시민 대책위원회 주관으로 토론회를 개최하여 시민들에게 실상을 알렸으며 경상남도도와 진주시,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기관에 뿌리산업 단지 용역중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인근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뿌리산업 단지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경남도를 방문하여 환경오염 피해 없음을 유치하지 않겠다는 도지사의 답변을 얻었으며 우리시 인근 지역에 산단을 조성하는 것을 절대 반대한다는 시민들의 입장을 전달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토론회, 향의 방문 등을 계속해 나갈 것이며 진주시에서 용역중인 환경영향평가 등 우

리시와 협의가 있거나 결과가 나오면 분야별로 면밀히 검토하여 시민들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항공국가산업단지와 관련한 향후 전략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국가산단 지정 후 추가적인 항공 인프라 구축을 위해 항공산업 관련 연구기관, 시센터 및 특화단지를 조성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여 명실상부한 항공산업의 메카로 발전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 부적절 사용에 대한 개선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향후 사회복지시설 최초 설립 시 대표자와 회계업무 담당자는 회계교육 이수 의무화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으며, 시 자체적으로도 사회복지시설 시설장과 종사자, 회계업무 담당자에 대하여 정령교육과 회계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등 보조금 부적절 사용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보조금 집행 부적절 사례가 발생 시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행정처분 등을 통하여 보조금 부적절 사용 관행화를 사전에 차단시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관련한 감사전담 인력 배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남도에서는 2014년도부터 사회복지분야 지도·감사활동 강화를 위하여 「사회복지 감사담당」설치를 검토 중에 있으므로 우리시에서도 경남도의 인력배치 추진상황을 보고 전담인력배치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운영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운영활성화를 위하여는 노선체계의 전면 개편으로 중복노선을 줄이고 승객들이 이용에 편리하도록 조정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를 위해 관내 시내버스업체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버스와 오지지역 마을택시 도입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는 현재 등록된 시내버스 31대 중 25대만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고 미 운영 차량이 증가할 경우 기존 업체의 경영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30대로 되어있는 시 지역 시내버스 인가 최소대수의 조정 등이 필요한 사항으로 국토교통부 건의와 함께 충분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지지역에 대한 마을택시 도입에 대하여 질의하신 내용은 좋은 시책으로 판단되어 오지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타시군 벤치마킹 등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거주 학생의 교통비 지원제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관련 법률 및 대상학생 파악과 소요예산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사능 공포로 인한 수산물 소비 위축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우리시에서는 수산물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단속과 홍보물 배부를 통한 수산물 안전성 홍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원산지표시 지도·단속과 안전성 홍보를 지속적으로 펼쳐 우리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제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급식 식재료의 전수검사를 할 수 있는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가능한 사항으로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장기적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등 교육지원청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명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및 요양원의 정관변경 신청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노인요양시설의 입소율은 2013년 4월 현재 85%로 2014년 예산 신청 안내 지침에 위배되지 않았으며, 지적하신 요양원의 경우 소규모 시설로 개인 운영하여 오던 시설로 2012년 7억 7천4백5십5만 2천원의 사업비로 증축사업을 하였으며 2013년 지원된 사업비는 증축에 따른 침대구입 등의 장비보강사업비를 지원한 것으로 2014년 노인복지시설 증개축 대상 시설의 안내 지침인 「13년에 증·개축 또는 개보수 지원대상으로 기 선정된 동일 노인복지시설은 선정 제외」항목에는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공무원과 민간인 15명으로 구성된 사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통해 접수된 6개소

모두 심의 가결되어 경상남도에 진달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국도비보조금 가내시 공문에 의하면 증축사업은 진주시 2개소, 거창군 1개소만 통보되었으며 이는 경남도의 2014년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기본 방침에 의거 전년도 기준 시군별 평균 입소율이 85% 이하인 시군은 신청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법인은 당초 노인시설 설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 인가를 신청하였으며, 이는 도 승인사항으로 진달에 앞서 장애인 담당 관련부서에 보완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중증장애인가구주시설 설치 운영에 따른 사업계획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재검토 의견을 통보받아 검토 결과를 법인에 통보하고 정관 변경 신청을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청사 건립 당시 보육시설 설치와 운영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시설이용 희망 직원이 적어 현재까지 보육수당을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직장 내 보육시설을 설치하면 보육의 질도 높이고 보육대상 직원들의 심리적 안정감으로 대인서비스도 많이 향상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청 내 직장보육시설을 아직까지 설치하지 못한 것은 영유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대부분 직원들이 보육시설을 이용하기에 불편한 사업소와 읍면동에 근무하고 있고, 분청 직원들도 읍면과 동지역으로 구분된 생활권으로 직원들의 수요도가 낮은 점 등으로 사천시청공무원노동조합과 단체교섭에 의하여 보육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유아 보육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임을 감안하여 지난 11월에는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직원 수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향후 보육수당지급 폐지 법령이 개정되면 보육수당 지급을 즉시 중단하고, 이를 직장어린이집 설치사업 예산으로 전환하여 직장어린이집 설치 계획수립과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미화원 순환배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미화원 인사규정 제정은 사천시민주노총일반노조지회와 몇 차례의 협의를 거쳐 추진 중에 있으며, 인사규정이 확정되면 2014년부터 1년에 3명의 운전원이 순환근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특수성, 전문성, 승차원 탑승 등 안전을 충분히 검토하여 빠른 시일 내 시행토록 하겠으며, 또한 환경미화원 운전원의 임금은 환경미화원 급여체계에 따라 지급되므로 전직자와 관계없이 기존의 급여체계에 따라 지급되며, 이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공평하고 형평성에 맞게 관리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기용 부시장

존경하는 최갑형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시민의 뜻에 부응하는 열린 의회를 구현하고, 시민행복과 지역변영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먼저 조성자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천문화재단, 사천세계타악축제, 박재삼문학관 운영과 관련한 자부담금 정산과 집행위원장의 권한,이사장의 역할과 책임한계 등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부금의 자부담금 사용과 관련하여 자부담금의 상세한 출처에 대하여는 정산보고 시 파악할 수 없었던 사안입니다.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부금을 모금하였다면

불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조사업 집행 후 보조금과 자부담금 정산 시 자부담금이 불법 모금액인지는 파악할 수 없었고, 자부담금 중 불법기부금 포함 여부는 수사가 진행 중에 있는 사항으로서 확인될 시에는 관련 법규를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사천문화재단은 사천시 사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천세계타악축제, 와룡문화제, 구암제, 문화예술단체 및 문화예술활동 지원 등의 사업을 사천시시장으로부터 위탁받고 보조금을 교부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사장은 재단법인 사천문화재단 예산회계 규정 제3조의 규정에 정한 경리관으로서 타악축제의 계약과 지출에 대한 최종 결재권자이나, 2012 사천세계타악축제 집행위원장의 지출 결재행위는 규정에 정하여 있지 않은 사항으로서 지출원인행위는 집행위원회에서 하고, 지출은 문화재단 사무국에서 총괄 집행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6백6십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사천세계타악축제 시 장비 임차와 관련하여 사천문화재단에서는 “경남에 거주하는 업체를 우선으로 선정할 것으로 하는 2012 사천세계타악축제 장비 임차공고”를 2012년 6월 27일 사천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였고, 접수된 5개 업체에 대하여 심사 후, 조명, 트러스, 특수효과 부문은 최다 득점 업체와 계약하였고, 음향부문에 대하여는 사천지역 내 업체 배려 차원에서 사천문화재단에서 수의계약하여 지출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천문화재단이 사장은 타악축제의 추진계획 수립과 계약 및 지출 등 경리관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집행위원장은 축제관련 계약과 지출에 대하여는 규정에 정하여 있지 아니한 사항이며, 향후 축제시 집행위원장은 축제 전반의 효율적 집행을 담당하고 재단이사장은 예산과 지출 전반을 책임지는 체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천문화재단에 대한 불신의 원인은 2012 사천세계타악축제 개최 시 기부금품 관련한 법령을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한 사항이 수사를 받고 송치 되는 등 일련의 사항이 원인이 되었다고 사료되며, 집행위원장은 이사회 의결로 선임하는 사항으로서, 2012 사천세계타악축제시 집행위원장으로 선임된 현직 도의원의 집행위원장 직무수행은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 등을 감안할 때 적절하지 못한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정비 및 활성화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정인의 중복 인선 예방과 다양한 계층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위원 선정시 위원회 총괄 부서인 기획감사담당관의 협의를 받도록 하고 각종 위원회 현황을 새울행정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함으로써 모든 부서가 위원회 구성 정보를 공유토록 하겠으며, 위원회별 운영 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법규와 조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는 과감히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의 위촉 또는 임명은 법령이나 조례 등으로 정해져 있으나 위원회별로 검토하여 가능한 한 위원장을 하향 조정하고 위원회의 구성은 다양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운영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대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협동조합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시민교육 및 홍보 등을 하지 못한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13년 5월 10일 「사천시 협동조합 지원조례」를 제정 공포하였으며 관련법령에 따라 협동조합 활성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고 또한 협동조합 자립화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등 협동조합 설립지원 및 운영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하여 협동조합 활성화 방안 용역 결과물 등을 적극 활용하여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단계별 행정적 지원을 추진하여 협동조합 사업의 성과가 확산되도록 1단계 거버넌스인 대 시민 교육과 홍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모범협동조합 자립화 시범사업”을 시행하여 운영하지도 않는 2개 업체를 심의하여 모범협동조합으로 선정할 사유를 질문한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근거하여 올해 5월 10일 「사천시 협동조합 지원조례」를 제정하였고,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을 위해 2013년 5월 21일 제1차 추경시 8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지난 8월 30일 “사천시 협동조합 자립화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관내 설립된 협동조합 중 1개 조합을 선정 시범사업으로 지원하여 협동조합 운영의 시범 모델로 이용할 계획으로, 금년 중 지원사업을 완료하기 위하여 9월 30일 현재 등록된 2개 조합의 지원신청자 중 1개 협동조합을 지원대상으로 심의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협동조합 지원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 24일 기획재정부, 7월 4일 경상남도로부터 협동조합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은 교육, 홍보, 컨설팅 등의 간접지원을 원칙적으로 추진하기 바란다.”는 협조요청이 있었으므로. 그러나 상급기관 “간접지원 추진”협조요청 사항은 등록된 전 협동조합에 대한 일반적인 지원을 자제하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금번 우리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지원한 사항은 앞에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조합설립을 촉진하고 협동조합 자립화의 시범사례로 활용하기 위하여 1개 협동조합을 선정 추진한 시책사업입니다.

지원한 협동조합에 대하여는 보조금의 집행 사항 및 조합 운영상황을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하여 우리시 협동조합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천읍 주민자치센터 운영평가보고회

사천읍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김의규)는 지난 14일 사천중학교 강당에서 주민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9회 사천읍주민자치센터 운영 평가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은 풍물반의 식전 행사를 시작으로 개회식과 각 동아리별 프로그램 시연, 노래자랑 및 행운권 추첨 등 행사를 가졌다.

김의규 주민자치위원장은 "이번 행사로 주민자치센터가 더욱 발전하는 계기로 삼겠으며 내년에는 더욱 알찬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로 삼겠으며 내년에는 더욱 알찬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말 따뜻한 온정의 손길 이어져

연말 사천읍내 여러 사회단체에서 따뜻한 온정의 손길이 이어졌다.

사천하나님교회, 사천고등학교, 사천사랑회 및 사천읍새마을회에서 사랑의

김장을 어려운 세대에 전달하였으며, 사천중학교 31회 동창회(회장 조현환 법무사)에서 김치냉장고 1대를 두레 공부방에 기탁했다.

정동면 기관단체별 친선체육대회

정동면에서는 지난 11월 27일 정동초등학교 실내체육관에서 면사무소, 정동초등학교, 동성초등학교, 사천여자중학교, 정동치안센터, 정동농협, 정동우체국, 이장협의회 등 기관단체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로의 친목과 화합을 다지는 체육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배구, 자유투, 윗놀이, 단체줄넘기 등의 경기를 치르며 승패를 떠나 구성원간의 결속을



다지고 기관 간 친선을 도모하였다.

여성재향군인회 김장 봉사

정동면 여성재향군인회(회장 안태순)에서는 지난달 11월 27일 겨울을 맞아 주 사랑 노인요양센터(정동면 소곡리 소재)에서 김장봉사를 실시했다.

이날 회원들은 배추 1,000포기를 절이

고 김장 김치를 담아 독거노인 등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했다.

김장봉사는 4년 전부터 해마다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어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곤양면 연말연시 이웃돕기 기탁 잇달아

곤양면 소재 가나안목장(대표 임인혁)과 곤양주유소(대표 최재권)에서 장애인들을 위해 사회복지시설인 '평강의 집'을 찾아 130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전달했다.

두 업체는 매년 어려운 계층 돕기에 앞장서고 있으며 지난달에는 면민을 위한 음악회와 면민체육대회에도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아 지역민들로부터 칭송을 받기



도 했다.

곤명면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

지난 12월 5일 곤명면새마을협의회 회원들은 연말을 맞아 소년소녀가장과 독거노인을 위한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를 실시했다. 새마을지도자(회장 이득상) 회원과 새마을부녀회(회장 이해임) 회원들이 유류지에 직접 배추를 재배하여 담근 이번 김장김치는 어려운 세대에 전달됐다.



용현면 새마을협의회 '사랑의 김장나누기'

용현면 새마을협의회는 지난 12월 10일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를 실시해 관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독거노인, 한 부모 가정 등 저소득층 150여 세대에 사랑의 김장김치를 전달했다.

새마을협의회장(이문우, 최명자)은 "사랑이 담긴 김치 한 포기가 살맛나는 용현을 만들어 가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축동면 새마을협의회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

지난 12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축동면 새마을협의회(회장 : 최용범, 이명순)에서는 축동면 복지회관 광장에서 회원 34명이 참여한 가운데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담근 김장 김치 50박스(배추 500포기)는 관내 경로당 17개소와 탐리 공단 외국인 근로자 100명에게 전달되었다.

축동면 새마을협의회는 해마다 연말이던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펼쳐



훈훈한 지역사회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사남면 푸르지오 입대위, 김장나눔 행사

사남면 소재 사천푸르지오아파트 입주자대표회(회장 진흥권) 주관으로 푸르지오 부녀회에서는 지난 12월 10일 아파트 중앙광장에서 사랑나눔 김장담그기 행사를 가져 눈길을 끌었다.

이날은 사남면(면장 이외식)과 사남면 주부민방위기동대(대장 오문자)도 김장담그기 행사에 참여해 배추 100포기로 5kg들이 50통을 담가 관내 저소득가정에



전달했다.

한결같은 불심(佛心)은 계속 이어지고

지난 12월 4일 사남면 소재 사찰인 대성사 신도 일동은 관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사랑의 쌀을 사남면(면장 이외식)에 전달하였다.

대성사 신도 일동은 백미 10kg, 80포(시가 200여만 원)를 사남면에 지정 기탁했으며, 사남면에서는 독거노인 등 생계가 어려운 80세대에 전달했다.

서포면 재부·재경서포향우회장 이·취임식

재부서포향우회(이임회장 김막수, 취임회장 이정수)에서는 지난 12월 11일 부산 코모도호텔에서 시의원, 서포면장, 이장, 자생단체장 및 회원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송년의 밤 및 회장 이·취임식 행사를 가졌다.

또한 재경서포향우회(이임회장 최승환, 취임회장 하재실)에서는 지난 12월 13일 서울 호텔캐피탈에서 국회의원, 시의원, 서포면장, 이장 및 회원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송년의 밤 및 회장 이·취임식 행사를 가졌다.

'청렴사천' 실현 캠페인 전개

서포면(면장 박봉옥)에서는 지난 12월 3일 서포농협 앞에서 이장협의회 등 9개 단체 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청렴사천 실현 캠페인을 전개했다.

"함께하는 청렴실천! 다가오는 투명사회!" 라는 슬로건 아래 전개된 이번 캠페인에서는 청렴사천 실현을 위한 시민 및 사회단체의 관심과 참여를 촉구했다.



동서금동 사랑의 열매 가두모금 실시

지난 12월 19일 동서금동주민센터에서는 “희망 2014 나눔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가두모금 캠페인에는 동서금동 자원봉사협의회를 비롯한 관내 12개 단체와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관계 공무원 8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동서금동 새시장 5일장에 맞춰 인근 상가 및 행인들을 대상으로 사랑의 열매를 달아주면서 모금을 유도하는 가두캠페인을 벌여



4,360,900원을 모금하였으며, 성금은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동서동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

동서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정홍찬)에서는 지난 18일 동서동주민센터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강생과 위원 등 약 2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3년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 및 한글교실 백일장을 개최하였다.

이날은 댄스 스포츠, 생활체조, 노래교실 프로그램 수강생들이 그동안 배우고 익힌 흥겨운 무대를 펼쳤으며, 특히 한글교실 백일장을 통하여 어르신들이 “자녀에게 전하는 편지”를 주제로 그동안 자녀



에게 전하지 못한 마음을 전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훈훈하고 정겨운 자리가 되었다.

선구동 마을지킴이단 경남도 최우수 선정

선구동 마을지킴이단(단장 이영순)이 경상남도 주최로 지난날 11월 29일 경남도청 신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4회 경남 아동·여성 인권지킴이의 날’ 행사에서 최우수 지킴이단으로 선정돼 경남도지사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차지했다.

선구동 마을지킴이단(4명)은 지역의 활용 가능한 네트워크와 연계해 위기가정 5가구에 대해 전문상담지원, 집수리, 아동집단 상담지원, 물품지원, 청소봉사, 반



찬 나눔 등 대상자의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향촌동 향촌·동서금 예비군 동대 준공식

향촌·동서금 예비군 동대 준공식이 지난 12월 20일 왕촌열 제8962부대 4대대장 등 내빈 및 관내 주민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에 신축된 향촌·동서금 예비군 동대는 건축면적 189.75㎡에 2층 건물로 준공되었으며, 지난 6월에 착공하여 이번에 준공식을 가졌다.

한편 정기용 동대장은 “이번 신축 건물 준공으로 근무환경 개선 및 교육여건 향



상 등으로 효율적인 지역 향토방위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동정 결산보고회를 통해 주민 참여 유도

선구동주민센터는 2013. 12. 26(목) 동주민센터에서 조직단체 회원 및 동민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3년 동정결산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제3대 자랑스러운 선구인상 시상, 2013년 동정 운영 실적, 단체별 주요 활동 사항 발표, 2014년 동정 운영

계획 등을 동민에게 설명하였으며, 또한 동민과 대화의 시간을 갖고 주민들의 불편 사항 및 건의사항 등 의견을 수렴하였다.

또한 11개 단체별로 2013년 봉사활동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져 조직단체 활성화와 홍보에 기여하였다.

연말 앞두고 불우이웃돕기 줄이어

연말을 맞이하여 향촌동에서는 기업 및 조직단체들의 불우이웃돕기가 줄어 이었다.

지난 12일에는 향촌동에 거주하는 추갑성씨(윤성수산 대표)가 관내 저소득 소외계층을 위해 써 달라며 500만원 상당의 백미(20kg) 100포를 동 주민센터에 기탁하였다.

향촌동연합청년회는 지난 13일 현금 50만원을 관내 불우한 저소득 계층에 사용해 달라고 지정기탁을 하였으며, 지난 11월에는 이불 15채를 기탁하기도 하였



다. 기탁된 물(금)품은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을 통하여 관내 어려운 세대에 전달되었다.

벌용동 자원봉사회, ‘사랑의 동지팔죽’ 나눔

벌용동자원봉사회(회장 박영숙)는 지난 12월 20일 동지를 앞두고 독거노인과 저소득 부자가정 21가구에 사랑의 팔죽을 만들어 전달하였다.

2008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나눔 봉사는 이날 벌용동자원봉사회원 20여명이 참여하였으며, 박영숙 회장은 “팔죽은 예로부터 조상들이 나쁜 기운을 쫓는다는 의미로 해오던 풍습으로 새해에는 저소득세대에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란다”



고 전했다.

“동정 소식이 한눈에 쏙 들어오네”

벌용동주민센터(동장 이종주)는 지난 12월 주민들을 위해 각종 소식을 알릴 수 있는 동정 소식 게시판 160개를 설치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경로당, 마을회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게시판을 설치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동정 소식을 더 효율적으로 홍보하게 되었다.

이종주 동장은 “동 게시판을 개당 만원 밖에 안 돼 저렴하면서도, 홍보효과는 높아 가격 대비 효과 면에서 큰 기대를 하고



있으며, 주민들에게 행정소식을 알리고, 동정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동정 소식 게시판을 계속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양동 동정결산보고회 성황리 마쳐

남양동(동장 정태현)에서는 지난해 12월 26일 기관단체장과 동 조직단체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3년 동정결산보고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동정보고회는 2013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보고를 시작으로 각 조직단체

주요 활동 사항 보고 후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지역개발 사업계획 등을 보고하였다.

보고를 마친 후 주민들의 건의사항 및 해당지역의 현안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통장협의회 이웃돕기 쌀 기탁

남양동 통장협의회(협의회장 김권준)에서는 지난해 12월 19일 남양동주민센터(동장 정태현)에서 연말연시를 맞아 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과 한부모 세대에게 사랑의 쌀을 전달하였다.

이날 김권준 회장과 회원 19명은 남양동 관내 독거노인과 한부모 세대에게 백미 20포(10kg)를 직접 전달하여 따뜻한 이웃사랑 실천으로 주변의 귀감이 되고



있다.

201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 안내

1월은 각종 인·허가나 면허 등에 부과되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부의 달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납부하신 지방세는 시정발전의 중요한 재원이 되오니, 납기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세의무자 : 2014. 1. 1. 현재 각종 인·허가나 면허 소지자
- 납부기한 : 2014. 1. 16. ~ 1. 31.
- 편리한 지방세 납부제도
 - CD/ATM(현금자동입출기)납부 : 전국금융기관 CD/ATM기☞ 지로공과금납부☞ 지방세☞ 과세내역조회 및 전자납부번호입력☞ 납부
 - ※ 신용카드 납부시 수수료가 없습니다. 다만, 타 은행카드 사용 및 할부수수료는 본인부담입니다.
 - 가상계좌 납부
 -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번호(농협)를 확인하여 무통장입금이나, 계좌이체로 납부(납부시 송금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접속하여 납부(계좌이체, 신용카드 가능)
 -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
 - 사용가능한 신용카드 : 비씨, KB국민, 삼성, 씨티, 롯데, 신한, 외환, 제주, 하나SK, NH카드, 수협, 광주
 - 납부방법 : 인터넷(위택스, 인터넷 지로), 세무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 납세금액 (잔여포인트 : 잔여포인트 내에서 납세금액 전액 차감)
 - 납세금액 (잔여포인트 : 납세금액에서 잔여포인트 차감후 잔여 금액에 대해서만 일반카드승인 처리)
 - ※ 포인트 일부사용은 불가능
- 불이익처분 :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과 관허사업 제한(면허취소)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 문의처 : 세무과 등록면허세 담당자(☎055-831-2896) 읍·면·동 세무담당자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안내

위법건축물을 한시적으로 합법화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 국회에서 발의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법건축물 양성화 조치법)이 2013. 7. 16. 공포 되어 2014. 1. 17. 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됨을 안내합니다.

- 법 시행시기
 - 2014.01.17 ~ 2015.01.16(1년간 한시적)
- 법 적용범위
 - 201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
 - ▷ 단독주택 : 연면적이 165㎡이하
 - ▷ 다가구주택 : 연면적이 330㎡이하
 - ▷ 다세대주택 : 세대당 전용면적이 85㎡이하
- 건축물 용어의 정의
 - 특정건축물 : 특정건축물을「건축법」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건축물 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
 - 주거용 특정건축물 : 특정건축물 중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이 주거용인 건축물
- 신고방법 및 흐름
 -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는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하여 해당 건축물을 관리하는 시장에게 신고(건축과)
 -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 1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
 - 신고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발급.
- 예외지역
 - 해당 개별법령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 개발제한구역,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등은 제외

자동차세 선납제도 안내

매년 1월중에 자동차세 1년분을 선납하면 당해년도 자동차세액의 10%를 공제해 드립니다. 자동차세 선납을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 신고기간 중에 시청 세무과 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방문(전화)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 및 공제 내역 □

구 분	신고납부기간	공제내역
1월중에 신고납부 하는 경우	1/16~1/31	연세액(1/1~12/31)의 10%공제
제1기분 납기 중에 신고납부 하는 경우	6/16~6/30	2기분세액(7/1~12/31)의 10%공제
분할납부기간에 신고납부 하는 경우	3/16~3/31	4/1~12/31기간 세액의 10%공제
	9/16~9/30	10/1~12/31기간 세액의 10%공제

※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무과 자동차세 담당자(☎055-831-2870) 및 읍·면·동 세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생 선발

1.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사천시에 2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관내 중.고등학교로서 장학금 지급기준의 자격을 갖춘 자
 - ※ 단, 장학금 지급기준의 자격을 갖춘 자라 하더라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익법인으로부터 명시적인 장학금을 지급받는 사람은 제외
2. 신청(추천)방법
 - 관내 고교 입학생 : 입학 예정인 고등학교장 추천
 - 한국폴리텍대학 항공캠퍼스 입학생 : 한국폴리텍대학 항공캠퍼스지역대학장 추천
 - 관외 대학(교)입학생 : 재학중인 고등학교장 추천
 - 예술, 체육 기타 기능이 우수한 학생과 단체 : 재학중인 중.고등학교장 추천
3. 제출방법 및 서류
 -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학교장이 사천시 인재육성 장학재단 이사장에게로 학교별 일괄 제출
 - 장학금 추천서(공통) 1부
 - 인문계 고교 및 관외 대학(교) 입학 기준 장학생
 - 내신 석차연명부 1부, 대입 수능성적표 1부, 대학 합격증명서 1부
 - 전문계 고교 및 한국폴리텍대학 항공캠퍼스 입학 기준 장학생
 - 학교장이 발행한 입학성적(등수) 확인서
 - 예술, 체육, 기능이 우수한 장학생(단체) : 상장사본 및 대회요강 등 증빙서류
4. 신청기간 : 2013. 12. 23.(월) ~ 2014. 1. 10.(금)
5. 접수 및 문의처
 - 접수처 : 해당 학생의 학교장이 (재)사천시인재육성장학재단(사천시 총무과)으로 접수
 - 문의처 : 사천시 총무과 평생학습담당 ☎ 831-2580(Fax 831-6021)

- 사천아카데미 제80강좌 -

『On-Air 인생을 살아라』

1. 16(목), 14:00 사천시청 대강당(2층)

사천시는 오는 1월 16일(목) 오후 2시 시청 대강당에서 윤영미 강사를 초청하여 『On-Air 인생을 살아라』라는 주제로 사천아카데미 제80강좌를 개최한다.

㉠ 학력 및 주요경력

- 성심여자대학교 국문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한국어교육 석사
- 91년 SBS 아나운서 입사, 여성최초 야구캐스터
- SBS 편성본부 차장
- 현) 프리랜서 방송인, 명지전문대학 초빙교수,

경상남도 공고 제2013-818호

2014년도 경상남도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개시 공고

2009년 발행 경상남도 지역개발채권 원리금을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상환 개시함을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31일

경상남도지사

1. 상환개시일 : 2014년 1월 31일 부터
2. 상환대상채권 : 2009년도 발행한 경상남도 지역개발채권으로 상환기간이 도래된 채권
3. 상환액 : 채권 액면가액 및 해당이자 (2009년도 발행 : 연 2.5% 복리)
4. 상환장소 : 농협중앙회 및 지역농협 전국 소재 전영업점
5. 지역개발채권 매입증서 분실, 도난, 기타 사고(멸실)시 채권상환 지역개발채권 매입증서는 상환장소에서 재발급이 가능함으로 권리자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임을 확인 후 상환
6. 유의사항
 - 가. 상환일 이후 이자 : 상환기간 만료 이후의 이자는 보통예금 금리 적용
 - 나. 채권 원리금 상환의 소멸시효
채권원리금 청구의 소멸시효는 채권 상환일로부터 계산하여 원금은 10년, 이자는 5년으로 완성되어, 이 기간 경과 후에는 채권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은 경상남도 예산담당관실(T.055-211-2364)로 문의 바람

경형자동차 유류세 환급 제도 안내

- 환급용 유류구매카드제 도입 취지
 -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 및 국민경제의 안정을 도모
- 유류세 환급대상자
 - 유류세 환급대상자 즉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 발급대상자는
 -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승용, 승합)를 소유하고 아래 내용을 충족하는 사람
 -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차 또는 승합차의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
- 유류세 환급액 및 시행시기
 - 경차 소유자가 경차 연료로 사용한 유류에 부과되는 유류세 중에서 연간 10만원의 한도내에서 환급
 - 휘발유 또는 경유 : ℓ 당 250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
 - LPG부탄 : ℓ 당 160원의 개별소비세
 - 2014.12.31.까지
 - ※ 지정된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에 대하여만 환급 가능하므로 그 외 방법으로 구입된 유류에 대하여는 환급 불가능
- 환급용 유류구매전용카드 발급신청
 -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전용카드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신한은행지점, 신한카드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 ※ 첨부서류 : 차량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
 - 전화 접수 : ARS 080-800-0001번으로 접수하면 상담원이 추후연락하여 카드신청 접수(첨부서류는 상담후 팩스로 송부)
 - (전화연결 후 카드신청 1번 → 경차사랑카드신청 3번 → 주민등록번호 → 이후 안내에 따라 신청)
 - 인터넷 신청 : 신한카드 홈페이지(www.newshinancard.com)에서 카드신청(첨부서류는 추후 팩스로 송부)
 - 신한카드홈페이지 → 카드발급, 신청 → 제휴·특화 → 특화 → 「경차사랑 유류구매카드」 신청
 - ※ 카드발급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신한카드(1544-7000)로 문의
- 유류세 환급 방법
 - 카드종류에 따른 유류세 환급 방법
 - 신용카드 : 청구금액에서 리터당 환급금액 차감
 - 체크카드 : 통장 인출금액에서 리터당 환급금액 차감
- 환급용 유류구매카드 부정 사용시 따르는 불이익
 -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경차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 시
 - 유류의 환급세액과 그 환급세액의 40% 가산세 포함하여 징수

2014년도 축산사업 신청 안내

- 사업개수 : 37개사업
- 신청기한 : 2014년 1월 21일 한
- 신청기관 : 읍, 면, 동사무소 및 축산단체협회사무실, 농축산과
-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 면, 동 및 축산담당으로 문의(☎ 831-3775~6)

세 부 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천원)					
		계	국비	도비	시비	용자	자담
33개 사업		2,694,166	482,880	201,750	1,248,325	220,000	541,211
산유 능력검정 지원	700두	31,752		2,268	11,340		18,144
젖소 능력개량 지원	400두	15,200		3,040	12,160		
액비 살포비 지원	250ha	50,000	10,000	3,000	37,000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15개소	268,000	53,600	22,200	51,800	120,000	20,400
축산농가 악취방지개선	20,680kg	103,400		8,352	47,988		47,060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	631톤	101,000		3,750	46,750		50,500
축사시설 환경개선사업	15대	9,900		2,970	3,960		2,970
흑염소 농가 자급사료 생산시범	1개소	5,000		2,000	2,000		1,000
사료용 곤충 생산농가 육성시범	1개소	10,000		3,000	5,000		2,000
가축재해보험 지원	93,117두	120,000	60,000	12,000	18,000		30,000
경종농가 조사료 생산비 지원	1,910톤	19,100		3,820	15,280		
조사료생산사업 사일리지 제조비	19,960톤	1,197,600	359,280	122,500	596,060		119,760
조사료생산 개별장비 지원	3대	125,000		1,750	23,250	100,000	
개량별통 지원	530통	39,750		7,950	11,925		19,875
친환경 축산물 인증 지원	7호	5,600		1,680	1,680		2,240
사료저장소 온도조절장치	21대	7,350		1,470	3,675		2,205
액비 살포기 지원	2대	30,000			15,000		15,000
흑서기 가축피해방지 송풍팬	190대	57,000			28,500		28,500
한우브랜드 종축정액대 지원	2,667두	20,000			20,000		
사천한우 브랜드거세비용 지원	733두	110,000			110,000		
한우암소 탄소저축 수술료 지원	60두	9,000			4,500		4,500
사료 발효기 지원	2대	30,400			15,200		15,200
낙농작업개선(이동식착유기)	5대	17,100			8,550		8,550
젖소 세척제 지원	700통	33,250			16,625		16,625
젖소개량축진 우량정액 지원	500두	19,000			9,500		9,500
낙농작업개선 자동목걸이 지원	475개	28,500			14,250		14,250
꿀벌 화분 지원	5,700kg	57,000			28,500		28,500
양돈농가 동력 사료운반 손수레	19대	38,000			19,000		19,000
양돈장용 냉난방기 지원	3대	13,538			6,769		6,769
가축분뇨처리 폭기기 지원	2대	9,026			4,513		4,513
돈분 고액분리기 지원	1대	15,200			7,600		7,600
모돈 교체 지원	38두	19,000			9,500		9,500
폐사축 처리기 지원	1대	34,200			17,100		17,100
자연조사료 담근먹이 비닐백 지원	9,000매	5,400			5,400		
조사료(곤포)커팅기 지원	5대	39,900			19,950		19,950
조사료생산장비(컨디셔너) 지원	1대	19,000			9,500		9,500
사료배합기 지원	2대	57,000			28,500		28,500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안내

1.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
 - 부가가치세【일반사업자는 2013년 제2기 과세기간(7.1~12.31)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2014.1.1~2014.1.27까지 국세청 홈택스로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간이과세자】는 2013년 과세기간(1.1~12.31)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2014.1.1~2014.1.27까지 국세청 홈택스로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기간
 - 신고·납부기간 : 2014. 1. 1. ~ 2014. 1. 27.
 - 전자신고 : 매일 06:00 ~ 24:00
 - 전자납부 : 매일 07:00 ~ 22:00(다만, 경남은행 평일 09:00 ~ 22:00)
 - 신용카드납부 : 1,000만원 한도(납부대행수수료 1.0%)
 - 금융결제원(www.cardrotax.or.kr) : 매일 07:00 ~ 22:00
 - 이용가능 카드 : kb, bc, 신한, 외환, 씨티, 현대, 롯데, 삼성, 제주, 수협, 농협, 전북, 광주, 하나비자 카드(14개)
3. 문의 전화

부 서	전화번호	국세청 콜센터
진주세무서 부가소득세과	055)751-0282 ~ 0289	국번없이 126
진주세무서 하동지서 부가계	055)880-0302 ~ 0304	
진주세무서 사천지서 부가계	055)830-0302 ~ 0305	



우주항공소년 포록이의 항공 이야기(121)

T-50 항공기의 두 번째 수출

2013년 12월 12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국산 훈련기 겸 경공격기인 FA-50(이라크 수출 모델명 T-50IQ) 24대와 조종사 훈련에 대한 11억 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항공기 운영에 필요한 후속 지원에 대한 계약도 예정되어 있어 이번 수출 총 규모는 실질적으로 21억 달러(한화 2조2천121억원) 이상으로 예상되며, 이는 우리나라 항공수출 사상 최대 규모일 뿐 아니라 방산수출 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라크는 미국에서 F-16 전투기 36대를 도입할 계획이며, F-16 도입을 마칠 때까지의 공백을 메우고 조종사를 양성할 목적으로 FA-50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이라크 수주는 2011년 인도네시아(16대) 이후 두 번째로 성사된 T-50 항공기의 해외 수출 계약이며, 특히 T-50 고등훈련기를 기반으로 자체 개발한 국산 경공격기인 FA-50 수출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우리나라 국산 항공기의 우수성이 동남아와 유럽, 남미에 이어 중동에까지 알려지는 쾌거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국산 항공기의 해외 수출은 이번이 다섯 번째로 그동안 국산 기본훈련기인 KT-1을 인도네시아, 터키, 페루 등 3개국에, 그리고 고등훈련기인 T-50 항공기를 인도네시아에 이어 이라크에 수출하게 되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현재 필리핀, 페루, 보츠와나 등에 T-50 계열 항공기 수출을 추진 중에 있으며, 특히 내년에는 훈련기 최대 시장인 미국의 훈련기(TX) 구매사업 수주 활동에도 본격적으로 뛰어 들 계획이라고 한다.

T-50 계열 항공기 1대 수출은 중형 자동차 1,000대 수출 이상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한다고 분석되고 있으며, T-50 이라크 수출을 통해 3조 4,0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 9,000억원의 부가가치 창출효과 등 총 4조 3,000억원이 넘는 경제적 효과와 3만 6,000여 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T-50 계열 항공기는 최첨단 디지털 비행제어 최신 기술이 적용된 초음속 훈련기로 F-16, F-15, F-35, F-22 등 최신에 4~5세대 전투기 조종 훈련용으로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우리 공군에서 80여대 이상 운용 중인 안정성이 입증된 항공기이다.

고등훈련기 T-50을 기반으로 개발된 FA-50은 공대공, 공대지 미사일과 20mm 기관포 등을 기본 무기로 장착하고 있다. 이와 함께 100km 앞 적기를 탐지하는 레이더는 물론 정밀직격탄 등 최대 4.5톤의 첨단 무장을 탑재하고 있으며, 야간 투시장치를 갖추고 있어 주야간 작전이 모두 가능한 4세대급 전투기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폴리텍대학
항공캠퍼스 교수 김형래

인도가 필요해요



정영희
명예시민기자

도로명 주소로 죽계 1길 6, 구도로 초입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왔다.

조용하고 공기도 맑고 뒤편으로 와룡산이 인접해 있어 산을 오르내리면서 건강을 다지기도 좋다.

그러나 시내에서 좀 벗어나 생활하기가 다소 불편한 점이 있다. 지역적으로 남양동에 인접해 있고 학교를 비롯해 동사무소나 은행이나 마트 등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어 굳이 삼천포시내로 나갈 필요까지는 없다.

단지 내에 따로 상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 삼천포 방향으로 머지않은 곳에 대형 마트가 있지만 지역 상권에 도움도 되고자 웬만하면 이곳을 생활 근거지로 하고 있다.

아파트 입주세대만 해도 250여세대가

넘고 인근 단독세대까지 합하면 적지 않은 인구다. 그런데 어렵잡아 거리가 200미터 남짓 되는 그곳까지의 도로에는 인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오가기가 불편하고 더구나 위험하기까지 하다.

그래서 걸어서 충분한 거리를 아낄 수 없이 차로 움직인다. 완행버스나 시내버스 같은 대형차 뿐 만 아니라 일반 승용차 등의 차량통행도 많은데 도로 갓길을 인도로 대신해 걷기에는 너무 좁고 위험하다. 차가 지나가면 비켜 멈춰서며 차를 보내고 가야 한다.

밤에는 더욱 위험하다. 가끔 차를 운전해 귀가하다보면 유모차에 의지해 도로를 지나가는 할머니들을 쉽게 만나게 되는데 순간 당혹스럽고 아찔하기까지 하다. 뒤로 난 길이 있지만 한참 돌아서 가야 되고 외쳐서 다니기가 또한 쉽지 않다. 촌이라 노인도, 걸어 다니는 사람들도 많다. 지역주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뭔가 시급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다.

명절음식은 적당하게



정용환
명예시민기자

구정이라는 고유의 명절이 곧 다가온다. 연말연시를 보내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해마다 돌아오는 명절이 마냥 즐거운 것은 그동안 찾아뵙지 못하던 어른들과 형제들을 고향에서 만나기 때문이기도 하다.

사람이 모이면 의례히 마련되는 것이 음식이다. 요즘은 종교적인 이유나 집안의 사정에 맞추어 차례를 간소하게 지내는 집도 많은 것 같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 정서는 명절 때 음식을 푸짐하게 장만하여 가족들이 많이 모여 즐겁게 식사하고 넉넉하게 준비한 음식을 헤어질 때 부모님들이 정성껏 싸주신다.

작년 구정 명절이 지나고 며칠 지나지 않아 아파트 음식 쓰레기를 버리러 가면서 무척 놀란 적이 있다.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는 평수도 적당하고 교통이 편리하여 젊은 세대가 많고 시 외곽에 위치하고 있어 조그마한 텃밭을 경작할 수 있어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도 살고 있는 조용한 아파트다. 구정이 좀 지나고 정월대보름이 막 다가올 무렵 음식 쓰레기를 버리러 가니 다른 젊은 세대도 음식 쓰레기를 버리고 있었다.

새댁은 구정 때 차례를 지내고 난 음식인지 생선꾸러미와 전, 산적 등을 싸주신 그대로 들고 와 음식쓰레기 통에 넣는 것을 보았다. 같이 쓰레기를 버리러 오신 어르신께서도 그 광경을 흘깃 보시고 무

척 놀라셨다.

아무리 먹을 것이 풍족하고 예전에 비해 명절의 의미가 간소화 되어간다고 하지만 고향의 부모님이 정성껏 마련해 주셨을 음식을 그것도 풀어보지도 않고 며칠 동안 냉장고에 넣어 두었다가 그냥 음식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은 상식 이하의 행동이 아닐까 한다. 아직도 우리지역에는 명절을 지내기 위해 타지에서 고향을 찾는 이가 많다. 많은 부모님들이 명절이 되기 며칠 전부터 차례 음식 장만에 고민하시는 것을 보면 아파트 음식 쓰레기통에 명절음식을 버리던 젊은 새댁이 생각한다.

이제 나이가 드신 연로하신 부모님들께서 음식을 준비하신다면 요즘 세태에 맞추어 차례를 지내고 나서 적당히 먹을 음식만 장만하시면 좋겠다. 물론 당신의 자식들에게 푸짐하게 싸주신 음식을 일터로 돌아가 냉장고에 넣어 두었다가 그냥 버리라고 생각하시는 부모님은 아무도 안 계실 것이다. 명절에 넉넉히 준비하신 음식을 일터로 돌아가는 자식들에게 푸짐하게 싸서 보내주시고 싶은 그 정성은 우리 모두 이해한다. 하지만 명절 연휴가 지나고 아침 무렵에 텔레비전을 보면 어떻게 하면 냉장고 안에 남아 있는 명절음식을 재활용할까 하는 주제의 방송을 반드시 보게 된다.

집집마다의 사정에 맞추어 적당한 명절음식으로 차례를 지내고 모인 자리에서 알뜰하게 준비한 음식만 나누다면 낭비 없고 알뜰한 미풍양속으로 이어질 것이다.

사천시 환경개선을 위한 노력 필요성



김경심
명예시민기자

지난 15일(일요일) 옹현면사무소 앞 도로를 지나던 중 도로 건너편 옹현초등학교 담장 앞에 모여 있는 아이들을 봤다. 손에는 청소도구를 들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었고, 벽면에는 예쁘고 아기자기한 타일로 만든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가까이 가서 보니 벽면에 붙은 알록달록한 타일을 깨끗하게 닦으며 작업을 하고 있었다.

지도 선생님의 말씀이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교육기부의 일환으로 옹현면사무소, 옹남초등학교, 옹남중학교, 옹남고등학교 그 외 민·관·기업이 협약을 맺어 벽화 그리기에 참여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벽화 그리기 작업을 하고 있는 학생들은 옹남중학교 학생들이었다. 학생들은 일주일에 두 시간씩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고 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벽화그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이 보기 좋았다.

평소 옹현초등학교 담장의 모습은 각 기관이나 단체의 행사를 알리는 현수막으로 채워져 있었다. 정리가 되지 않고 어수선한 모습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벽화그

리기 작업 후 현수막 대신 타일 벽화로 채워진 담장의 모습은 산뜻했다.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지역 다른 곳에도 환경개선이 필요한 곳이 많음을 새삼 생각해 봤다. 그중에서도 매일 우리가 생활 속에서 사용하고 버린 쓰레기처리 문제가 생각났다. 거리에는 쓰레기로 넘쳐난다. 쓰레기를 별도 관리하는 아파트나 대형 상가는 그나마 정리가 잘 되지만, 주택이나 소규모 상가에서 나오는 쓰레기 관리가 잘 안 된다. 가로수 밑이나 전봇대 아래에는 온갖 쓰레기가 뒤섞여 방치되어 있다. 바람이 부는 날에는 쓰레기가 이리저리 뒹굴며 거리를 지저분하게 만든다. 특히 쓰레기에 음식물이 들어 있는 경우에는 들고양이들이나 떠돌이 개들이 쓰레기봉투를 물어뜯어서 보기에 좋지 않고 악취가 심하다.

우리시 환경 개선을 위한 한 방안으로 쓰레기통 설치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모았으면 한다. 수거가 편리하고 디자인 면에서도 빠지지 않는 쓰레기통을 만들면 어떨까. 이왕이면 우리시의 캐릭터를 넣어서 만들면 더 좋겠다. 사천시와 시민 모두의 노력으로 살기 좋은 사천, 깨끗한 사천으로 거듭났으면 좋겠다.

촉치정심(觸豸正心)

해태는 화재(火災)나 재앙을 물리치는 신수(神獸) 또는 벽사의 의미로 장식하고 있다. 해태라는 말은 해치(獬豸)에서 비롯된 것으로 본다. 해치는 요순(堯舜)시대에 태어났다는 상상의 동물로 그 이름도 해치, 신앙(神羊), 식죄(識罪), 해타 등으로 불렸다.

‘시비와 선악을 판단하여 안다고 하는 상상의 동물’로, 한자로는 해(獬)가 부정된 사람을 보면 뿔로 들이받는다는 신수(神獸), 신통한 양 등을 뜻하고, 치(豸)는 웅크리고 노려보다, 풀리다 등의 의미가 있다. 해치의 모습과 성질에 대해서는 『논형(論衡)』 「시응편(是應篇)」과 『이물지(異物志)』 등을 통해 알 수 있는데, 뿔을 하나 가진 동물로서 모습은 양을 닮았으며 대단히 영물스럽고 사람의 시비곡직을 판단하는 신령스러운 재주가 있어 성군을 도와 현명한 일을 많이 하였고 만일 잘못된 사람이 있으면 그 뿔로 덤벼들어 받는 ‘정의의 동물’이라고 할 수 있다.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구분하는 속성 때문에 해태는 재판과 관계 지어졌으며, 후세에는 해치의 모습이 재판관의 옷에 그려졌고, 조선시대에는 관리들을 감찰하고 법을 집행하는 사헌부를 지켜주는 상징으로 사헌부의 우두머리인 대사헌이 입는 관복의 흉배에 해치를 새겼고 또한 오늘날에도 국회의사당과 대검찰청 앞에 해치상이 세워져 있다. 이는 해치처럼 자신의 마음을 가다듬고 항상 경계하며, 정의의 편에서 서서 법을 공정하게 처리하라는 뜻이 담겨 있다는 것에 유래한 것이다.

선비가 가까이 하였던 연적을 해태모

양으로 만들어 사용하여 정의로운 심성을 가지기를 기원하였으며 여성들의 노리개나 주머니 장식으로도 사용하였다.

풍수학의 고전 ‘청오경’에 ‘명당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조성될 수도 있고 인위적으로 조성될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온다. 완벽하지 않은 땅을 사람과 환경이 조화롭게 공생할 수 있는 땅으로 만들 수 있다는 뜻이다. 이를 비보(裨輔)라고 한다. 장승을 마을 어귀에 세우거나 물새를 얹힌 솥대를 물가에 꽂거나 물길에 흘러 나가면서 기가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자 돌탑을 쌓거나 마을이 외부로 흰히 트여 있으면 나무를 심는 당 숲 등이 우리가 흔히 보는 신앙 비보 사례다.

물에 관련된 수구(水口)비보와 연못을 파거나 해태 상, 돌 거북을 설치해 불길을 누르는 화기(火氣)비보, 땅의 힘이 부족하거나 훼손되기 쉬운 곳을 가다듬는 산천(山川)비보, 이름을 바꾸는 지명(地名)비보 등을 통틀어 비보풍수(裨輔風水)라 이른다. 한국의 비보풍수는 도선 국사(827~898)에게서 비롯됐다고 한다. 고려는 산천비보도감, 조선은 관상감이라는 관청을 두고 국가 차원에서 운영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해태상은 광화문에 있는 해태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광화문의 해태상은 본래는 지금의 미대사관 자리 앞인 세종로 육조거리 사헌부 대문 앞에 세워져 있었다고 한다. 해태를 거기 세운 이유는 관악산의 화기를 막는 목적 외에, 관리들로 하여금 강직한 품성을 기린다는 뜻이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경북공에 들어오는 사람이 가마나 말을 타고 올 때 해태상 앞에서부터는 가마

와 말에서 내린 후에 걸어서 들어가는 하마비 역할도 하였다고 한다.

1396년 조선 태조께서 관악산의 화기(火氣)를 막기 위해 무학대사의 뜻에 따라, 관악산에 자운암을 세운 뒤, 산의 중턱에는 물동이를 묻고 경북공의 앞에는 해태상을 세웠다고 전해지고 있다. 그리고 개국 공신인 정도전은 경북공 정남쪽에 대문을 세우면서 그 이름을 숭례문(崇禮門)으로 삼았는데 세로로 세워진 숭례문 현판도 화마를 피하기 위함이다. 오행으로 볼 때 불(火)에 해당하는 례(禮)자를 쓰면서 그 위에 불꽃의 형상과 비슷한 ‘높이다’는 의미를 가진 ‘송(崇)’자를 더하고 현판까지 다른 대문과 달리 세로로 써 내려 불꽃이 타오르는 듯한 형상을 이루도록 했다는 것이다. ‘불은 불로써 다스린다’는 이화치화(以火治火)의 논리다.

이 해태상은 일제강점기인 1923년 철거 되었다가 총독부 청사를 지은 후인 1929년 총독부 앞으로 옮겨 세워졌으며 제3공화국 시절인 1968년 광화문 복원공사 후에는 광화문 앞으로 옮겨졌다. 다시 2006년 광화문 복원 공사 시 해태상을 옮겨 놓은 동안 2008년 숭례문 화재가 날 때 해태가 없어서 관악산 화기가 침범했다는 구설수에 오르기도 한바 있다.

광화문의 해태상과 국회의사당 해태상은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 우선 암수 구분이 없는 광화문 해태상과 달리 국회의사당 해태상은 암수가 구분돼 있다. 의사당 정문에서 바라볼 때 왼쪽이 수컷, 오른쪽이 암컷이며 가까이 가보면 확인할 수 있다. 또 앉아 있는 광화문 해태상과 달리 국회의사당 해태상은 목을 쪽 뽑고 일어서 있다.

국회의사당 해태 상에 숨겨진 재미있는 이야기는 그 아래에 포도주를 묻었다는 것으로 준공 당시 해태제과에서 기증한 것이라고 한다. 1975년 국회 준공시

해태제과에서 해태 상을 기증하면서 계열회사인 해태주조(株)의 최초개발품인 노블와인이라는 상표의 백포도주를 해태 상 아래 각각 36병씩 72병을 묻었다고 전한다. 100년 뒤인 2075년 국가에 경사스러운 일이 생기면 이 포도주를 꺼내 건배주로 쓸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 포도주의 유통기간이 100년이 넘는지 모를 일이다.

해태(해치)는 예로부터 사악과 부정에 용감히 대응하는 성격으로 청빈하고 깨끗함을 상징해 후한시대 이래 궁궐을 비롯한 각 관아 앞에 세워진 동물이다. 궁궐이나 각 관아 앞에 해태 상을 세워둠으로써 곡직(曲直), 사정, 청탁을 엄연히 가리는 이상 정치의 표상으로 삼아왔다.

지난 11월 사천정명600주년 기념과 더불어 시청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해태상이 세워졌다. 해태 상을 설치하는 근본취지는 화기비보보다는 벽사와 시비곡직을 판단하는 데에 더 비중을 두었으리라 본다. 그런데 왼쪽은 시청 바깥으로 보고 있고 오른쪽은 시청건물을 보고 있다. 다른 곳의 해태상은 들어가는 길목 양쪽에서 서로 마주 보도록 하여 가운데로 향하고 있는데 특별한 뜻이 있는지 의문이 가지지 않는다.

이규태의 《눈물의 한국학》(기린원, 1987)에 의하면, 경북공 궁문을 드나드는 대소 관원(官員)들이 광화문 앞 해태를 지날 때에 사심(邪心)과 부정을 씻는다는 상징적 의미로 해태꼬리에 손을 얹는 관습이 있었다고 한다. 이를 촉치정심(觸豸正心)이라 하는데, 꼬리를 만져 마음을 바로 씻는다는 경국대전 말미에 나오는 말로써 사천시청의 공무원들도 이런 풍습을 재현해 보면 어떨까하고 권하고 싶다.

사천시 용현면 용치로 67-25 조영규

사천시보가 전하는 전국향우 동정

각 지역 향우회 동문회는 송년잔치 중

12월은 송년의 달이다. 머리 어지럽던 일은 모두 털어 버리고 신바람을 일으키며 달려오는 말뚝을 맞이할 준비를 한다. 전국 곳곳의 크고 작은 모임에서 잔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양, 남녀 향우 동문들이 모여 서로 덕담을 하며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다. 각 지역 그들의 송년모임과 신년회를 살펴보기로 하자.

*재경 정동면 향우회(회장 조규남)는 서울 향우들을 모아, 지난 12월 5일 6시 30분 서울시 교통문화교육원 2층 ‘웨딩홀 부페’에서 일찌감치 송년회를 마쳤다.

*재경 곤명면향우회(회장 배영수)는 지난 12월 10일 7시 고향사람들을 모아 한해를 마무리하는 자리를 마련했었고

, 재경 향우회 중 오래된 재경 서포면 향우회(회장 최승환)의 송년회가 12월 13일 저녁 용산 이태원동 호텔캐피탈에서 개최되어 즐거운 저녁을 보냈다. 지난 5월에 사천과 삼천포향우회가 서로 통합 결성된 재경 사천시향우회에서 유형재 회장, 정쌍용 사무총장, 강현중 사천읍 사무국장 등이 초대되어 참석했다.

*재경 사천시 향우회(회장 유형재)에서는 재경 향우들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마련한 “사랑의 쌀” 전달식이 있었다. 지난 12월 20일(금) 오후 2시 향우 24명이 동참하여 모은 쌀 150여 포대를 유형재 회장, 김갑태 이사, 강현중 사천읍 사무국장, 정쌍용 사무총장이 사천시를 방문 전달하였다. 한편, 재경 사천시향우회는 신년 오는 1월 17일(금) 18:30

세종문화회관 세종홀(광화문역 8번 출구 후면)에서 신년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재 대구 사천삼천포향우회 겸 (43가보자)운동 대구본부(회장 정대요)도 12월 7일(토) 7시, 대구호텔 별관 1층에서 60여명의 남녀 회원들이 시낭송(詩朗誦)도 하며 한해를 회고하고 대망의 신년을 맞이하는 송년행사를 열었다. 정대요 회장이 2년 임기의 회장에 만장일치로 사천 의결되어 연임되었다.

*재 인천 사천삼천포향우회 겸 (43가보자)운동 인천본부(회장 김성일)도 송년의 밤 행사를 12월 7일(토)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어담’ 식당에서 인천시, 부천시 남녀 향우들이 모여 신년을 기약하는 송년모임을 가졌다.

*재경 삼천포고동문회(회장 이맹환)는 다사다난했던 한해를 보내며 동문들의 친목도모를 위해 재경 동문들을 초청하여 지난 12월 12일(목) 오후 6시 30분 호텔 캐비탈 3층에서 서로 격려하며 송년회를 하였다.

*재부산 남양 향우회(회장 백광석)도 12월 6일 저녁 6시 30분부터 연산동 해암 뷔페 9층 대연회실에서 남녀 향우들이 모여 정기총회 겸 송년모임을 가졌다.

*재부산 삼천포고 총동문회(회장 이영오 / 주관 29회 회장 백운수)는 지난 12월 19일 저녁 7시 해운대 ‘마리나센터 1층 웨딩홀’에 모여 선후배들이 모인 가운데 담소하고 웃으며 한해를 보냈다.

*근남골에 있던 가천초등학교 재부산 동문회(회장 최정경)는 12월 21일 오후 6시 30분부터 연산동 로타리 옆 해암 뷔페 9층에 참석하는 동문들께 즐기념품 및 상품을 꾸밈하게 준비하여, 송년의 밤 행사를 가졌다.

사천시 종합사회복지관 2013 수강생 수료식 및 작품전시회 가져

사천시 종합사회복지관 수강생 수료식 및 작품전시회가 지난 19일 수료생 및 강사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종합사회복지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수강생들은 지난 9월 2일 입학 이후 4개월간 각종 프로그램을 이수하였으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된 11개 프로그램 수강생 263명과, 서부사회복지관에서 운영된 3개 프로그램 수강생 59명에 대한 수료식이 함께 진행됐다.

이날은 개량 한복 만들기, 의상디자인

과 옷 수선, 제과 제빵, 천연비누&화장품, 서예 프로그램 수강생들의 작품이 전시되었으며, 오카리나, S라인 밸리댄스, 신바람건강댄스, 노래교실 프로그램 수강생들의 공연 등이 화려하게 선보였다.

특히 한글 프로그램 교실에서는 어르신들의 글쓰기 대회를 개최하여 우수 작품을 어르신 스스로 발표케 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자긍심 고취는 물론 누구나 하면 된다는 확신을 심어 주었다.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사천지구협의회 '1318 청소년 스타킹' 대회 개최

청소년의 재능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열린 문화활동으로 2013년 '1318 청소년 스타킹' 대회가 지난 12월 23일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관내 중·고교 학생 등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날 예선을 통과한 관내 13개 중·고교 학생 62명의 화려한 경연이 펼쳐졌다.



출함으로써 건전한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사천의 밝은 미래를 위한 꿈나무 육성을 위한 밑거름이 되고, 청소년을 사회인으로 성장하게 돕는 대회인 만큼 앞으로 관내 학교와 시민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한편 1318청소년 스타킹 행사는 매년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지청장 황보중) 주최와 범죄예방 사천지구협의회(회장 박철규) 주관으로 시행되고 있다.

경남국제외국인학교 필리핀 재난 돕기 행사



태풍이 필리핀 하이얀(Haiyan)지역을 휩쓸어 지나간 지난 11월부터 경남국제외국인학교(GIFS)에서는 태풍으로 인해 재난을 당한 필리핀 사람들을 돕기 위한 모금 활동을 시작했다.

학생들은 학생회를 소집하여 구호 방법 등을 논의하였으며, 10~18세로 구성된 어진 학생회 회원들은 Facebook을 통해 모금내용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렸고, 학교 내에 비치한 구호물품함에 성금 및 구호물품을 모았다.

또한, 학생회에서는 학교 내 음악동아리 단원들과 함께 필리핀 구호활동 자선음악회를 개최 하였으며, Winter club(동아리)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만든 수공예품과 과자 또는 케이크 등을 만들어 판매하여 성금을 모으기도 하였다.

경남국제외국인학교에서는 구호물품 20kg과 1,252,100원을 이번모금활동을 통해 모았으며, 필리핀 재난 피해민에게 보낼 예정이다.

대한적십자사
후원문의 1577-8179 (평일만)

적십자회비, 사랑이 희망이 됩니다

가정이 되어 받아본 적십자회비 지로움지,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 나눔의 중요성을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 나눔, 이 한 장으로 시작됩니다.

적십자회비 집중모금기간
2013. 12. 10 ~ 2014. 1. 31

스마트폰으로 회비를 신청하세요

홍보대사 신현준

지금 바로 참여해 주세요!

더 자세한 정보는 적십자 홈페이지 www.redcross.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상계좌, 금융기관, 스마트폰, T 스마트청구서, 인터넷납부, 1577-8179 ARS, 편의점납부, 카드 포인트

우리 수산물 안전합니다

- 후쿠시마 주변 8개현 '모든수산물' 수입금지 조치하였습니다.
 - 모든식품(국내산포함)에 대하여 방사능 검사기준 대폭강화
 - 국내산 고등어, 오징어 등 방사능 안전성검사 결과 모두 적합
- 전국 도매시장·공판장·대형마트 등 유통수산물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유통수산물에 대해 자체 방사능 검사기를 도입하여 상시 검사 실시
 - 일본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 및 원산지 특별단속 실시로 부정유통 감시 강화
- 일본 해류(어종)의 우리나라 유입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 방사능 걱정 없는 "깨끗하고 안전한 우리수산물" 마음 놓고 드셔도 됩니다.
- 우리 수산물은 방사능 오염이 되얌아 깨끗하고 안전하며, 영양학적으로도 DHA·EPA가 풍부하여 노화억제, 두뇌개발 등에 효과가 뛰어난 건강식품입니다.